

하나된 변화, 새로운 도약

SIMPAC그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프레스 제작, 합금철 개발 및 생산, 철강 유통 및 가공 기업으로서 관련 사업을 주도하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오늘의 SIMPAC을 있게 한 원천인 남들이 가지 않는 길, 남이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 먼저 도전하고 그 도전을 이루어 내는 First Mover의 모습을 앞으로도 이어가고자 합니다.

Taking the Next Leap Forward as One

SIMPAC Group



SIMPAC홀딩스

SIMPAC그룹 지주회사

- 자회사에 대한 출자 및 포트폴리오 관리
- 철강 가공 및 유통



SIMPAC 프레스BU

국내 No.1 프레스 메이커

- 기계식, 유압식, 서보 프레스 생산



SIMPAC 메탈BU

국내 Top-tier 합금철 메이커

- 페로망간 및 실리콘망간 합금철 생산
- Roll 가공 및 제조



SIMPAC인더스트리 산업기계BU

글로벌 기계 메이커들의 든든한 파트너

- 산업기계 및 감속기 생산



SIMPAC인더스트리 페로실리콘BU

글로벌 합금철 시장의 새로운 리더

- 고순도 페로실리콘 생산



SIMPAC홀딩스 리스텍비즈

세계 최고수준의 리사이클링 기업

- 고순도 산화아연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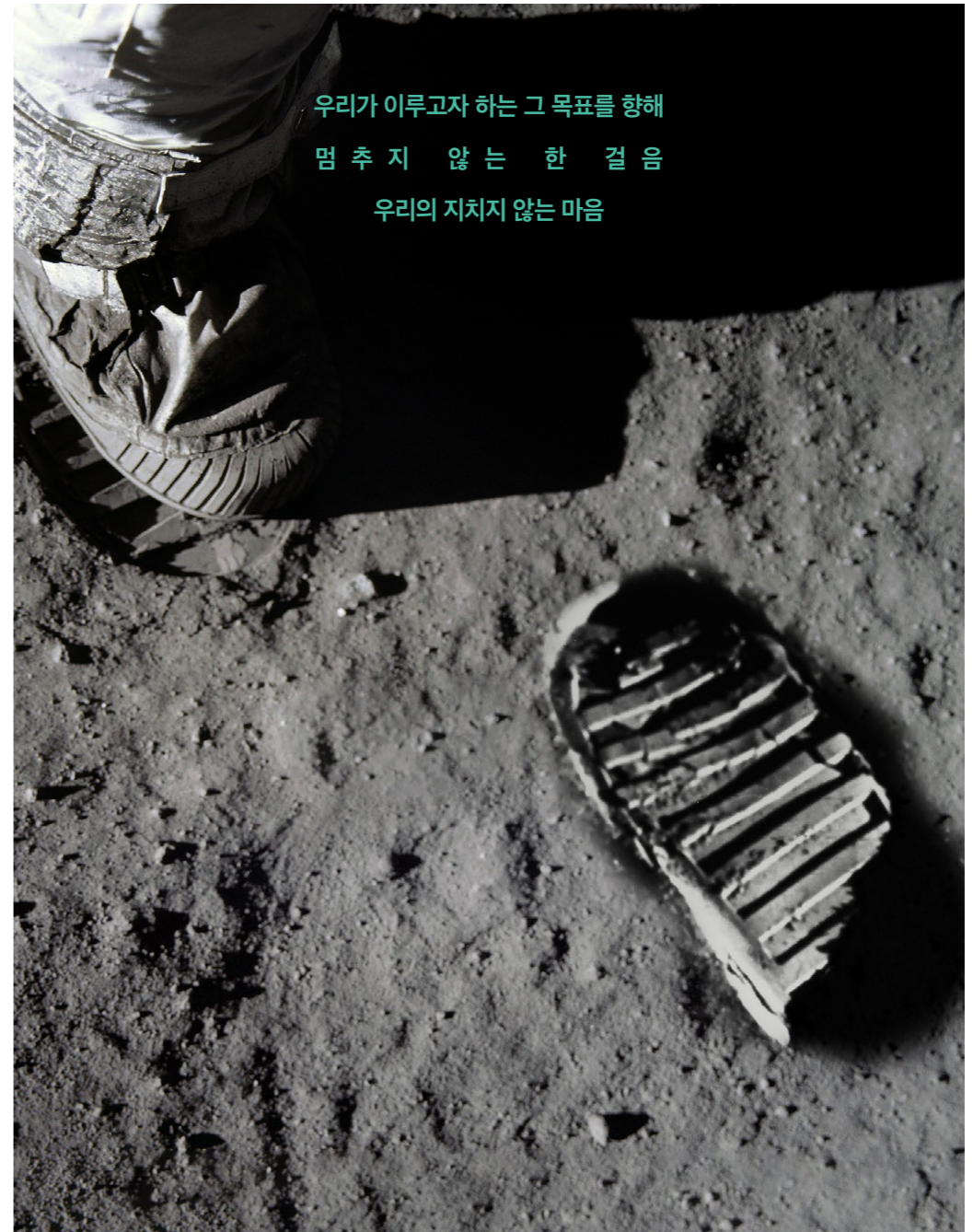
SIMPAC

SIMPAC STORY Magazine

VOL.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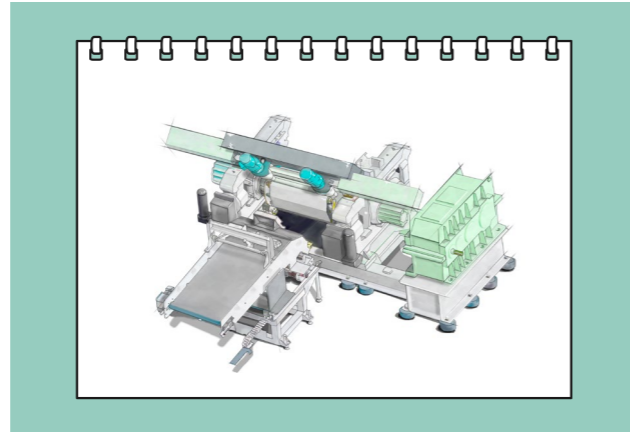
SIMPAC

VOL.55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향해
멈추지 않는 한 걸음
우리의 지치지 않는 마음

SIMPAC STORY Magazine



생각을 여는 하루

스페셜 테마 04
지치지 않는 마음, 꾸준함의 힘

테마, 밑줄 긋기 06
에너지를 깨우는 이 시대의 감성 소통 '하.이.터.치'

2050 스피커 10
성장을 복돋는 한마디 VS 의지를 꺾는 한마디

P_Pride 14
생산성은 높이고, 작업환경은 개선하다

함께 뛰는 심팩

한 컷 화보 1 18
SIMPAC홀딩스 리스텍비즈 1공장

현장 속으로 20
SIMPAC인더스트리 산업기계BU

심팩 인사이드 26
SIMPAC그룹 DX 관련 인력 대상 특강 진행

배달 왔어요 30
메탈BU 포항1공장에 커피차 선물

ZOOM IN 34
-2023 철강 마라톤 & SIMPAC 어울림 한마당
-메탈BU 포항1공장 구내식당 리모델링

NEWS 38
뉴스 단신

마음을 나누는 우리

한 컷 화보 2 40
SIMPAC글로벌

이동하는 사진관 42
우리 회사에 '인생 네 컷' 등장?!

우리집 D.I.Y 46
집에서, 가족과 함께
친환경 업사이클링 키트로 소품 만들기

심팩인 아지트 50
SIMPAC홀딩스 리스텍비즈 1공장
34 임직원들이 추천하는 전남 일대 핫플 리스트

안전한 하루 54
아차! 하는 순간 발생할 수 있는
38 추락·낙상 사고 예방하기

TREND 56
고물가 시대, 절약정신으로 무장한
직장인 라이프스타일 키워드

우체통 58
독자 참여 이벤트



통권 55호
발행인 최진식
발행일 2023년 7월 3일
발행처 SIMPAC홀딩스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2 심팩빌딩 14층
기획·편집·디자인 (주)대통기획
Tel. 02-2269-36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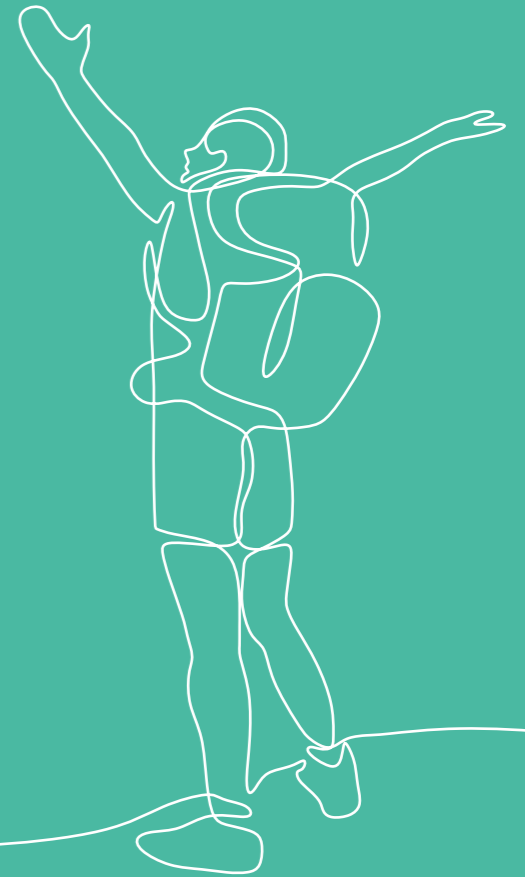
사보 담당자
(주)SIMPAC홀딩스
이도영 매니저 02-3780-4923
dylee@simpac.com
(주)SIMPAC 프레스BU
오형석 매니저 032-510-0020
hsoh@simpac.com
(주)SIMPAC 메탈BU
조술범 매니저 054-271-8725
sbcho@simpac.com
(주)SIMPAC인더스트리 산업기계BU
최한나 매니저 032-590-8905
hnchoi@simpac.com
(주)SIMPAC인더스트리 페로실리콘BU
김중철 매니저 054-271-8931
jckim@simpac.com
(주)SIMPAC홀딩스 리스텍비즈 1공장
박지윤 매니저 061-797-2011
jyunpark@simpac.com
(주)SIMPAC글로벌
조정래 매니저 053-585-9782
jrjo@simpac.com

지치지 않는 마음, 꾸준함의 힘

한 걸음 한 걸음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심팩인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SPECIAL
THEME



MZ세대 사이에서 철학처럼 회자되는 한마디,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란 말의 울림은 나이를 불문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공감의 정서를 불러 일으킵니다.

똑같이 시작했지만 결국 끝까지 해내는 사람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가고자 하는 방향이 맞았다면 속도보다는 '꾸준함'이 답입니다.
때론 목표가 희미해지고 방향을 잃었다고 해도 다시 되돌아 나오면 그만입니다.
지치지 않고 멀리 내다보면서 자신의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면 끝내 우린
해냈다는 성취 앞에서 내 자신을 뜨겁게 안아줄 수 있는 순간과 마주할 것입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를 정도로 열심히 했지만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변 환경이나 조건이 걸음을 멈춰 세울 때,
모든 걸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어 질 때, 지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아끼고 위하며 응원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에너지를 깨우는 이 시대의 감성 소통 '하.이.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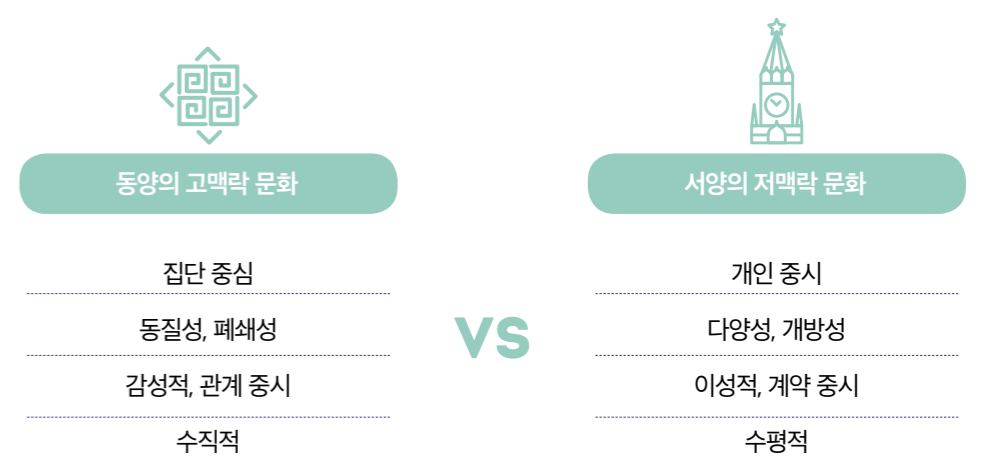


디지털 세계로의 급속한 전환 가운데 경험한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사회의 커다란 충격이었다. 미래에 대한 예측은 더욱 어려워졌고,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불안한 일상을 보내게 되었다. 그 어느 때보다 '심리적 안전감'이 필요하다. 시비 다툼의 논쟁보다, 긍정 감정을 먼저 이끌 수 있는 공감적 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변화의 충격은 일터가 훨씬 크다. 우리 일터에는 기존의 매뉴얼과 고도화된 프로세스로 처리하기 어려운, 예외적이고 비정형적인 이슈들이 급증했다. 리더의 전문성이나 과거의 경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났으며 담당자 한 명 또는 특정 부서의 노력으로 개선하기 힘든 복잡한 문제들이 증가했다. 집단지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하는 소통의 기술이 중요한 시대인 것이다.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리다!

변화된 환경의 소통 방법은 달라져야 한다. 구성원들의 관계도 서로 공유하는 것이 많았던 과거 고맥락 문화(High Context Culture)에서는 '눈치와 염치'를 토대로 '알아서 잘' 대응해 왔다. 리더와 선배는 전문성과 경험에서 오는 권위에 따라 결정한 '답'을 따르도록 일방적으로 지시했다. 속도가 중요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나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간주했다. 침묵과 복종을 미덕으로 여겼다. 개인적 희생이 따르더라도, 집단의 목표 달성과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오랫동안



VS

* Edward Hall(1959), 침묵의 언어

이제는 이질적인 요소가 훨씬 많은 저맥락(Low Context) 상황으로 바뀌었다. 직무도 세분화되고, 고용관계도 훨씬 복잡해졌으며, 수평 조직으로 전환되면서 그동안 담아왔던 각자의 목소리가 커졌다. 구성원들의 이해충돌과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끄는 과정은 더욱 어려운 셈이다. 상사와 동료들 경쟁자와 적으로 인식할 가능성도 커졌다. 현재의 저맥락 상황에서는 과거의 방식으로 소통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자신의 솔직한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하도록 허용하고, 존중해야 한다. 상대방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양방향 소통과 참여적 의사결정 기회를 구체적으로 제공해 주어야 한다. 과거보다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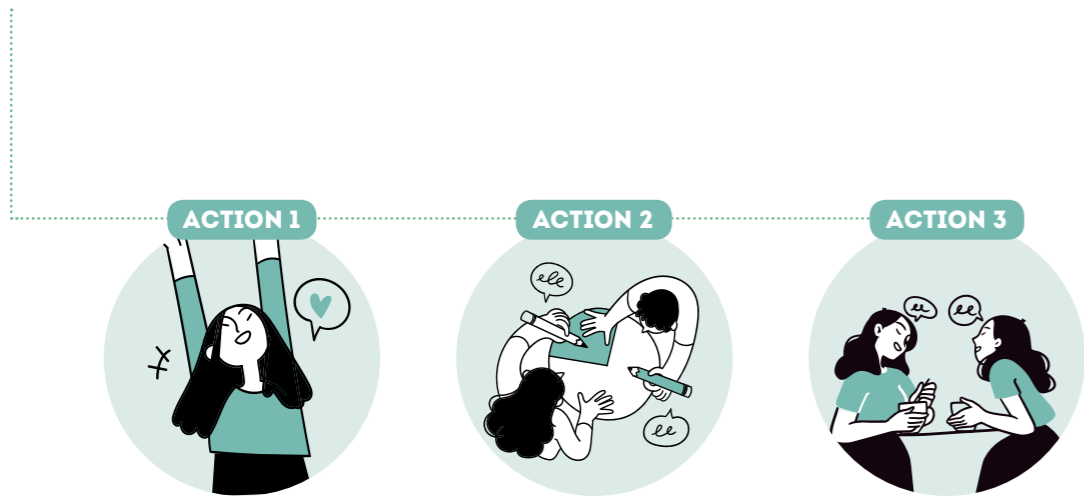
인간과 사회가 지속되는 한 변하지 않는 속성인 '심리적 공감'에서 해결점을 찾아보자. 2천 5백 년 전의 고전과 경전의 이야기(Story)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문화적 차이와 상관없이 세계인으로부터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 사실과 객관성에 주목한 '물리(物理)'와 '논리(論理)'보다, 상상과 주관에 속한 '심리(心理)'가 훨씬 강력하고 변하지 않는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소통 상황에 적용하면, 상대방의 심리적 안전감을 높일 수 있는 존중(Respect)과 인정(Recognition)을 표현하는 기술은 변함없이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일터에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감을 토대로 명확성을 높이는 하이터치 소통 방법을 소개하겠다.

CHAPTER. 1 상대방과의 라포(Rapport) 형성이 우선이다!

불안이 보편적 정서라는 점을 고려해서, 상대방의 방어기제가 작동하지 않도록 미리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방어기제(Defense mechanisms)란 모든 생명체가 갖고 있는 생존 반응으로, 외부의 자극이 자신에게 위협이라고 인식되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으로 반응하는 메커니즘이다.

모든 인간은 외부의 자극이 '자신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계산한다. '좋아? 싫어?'라는 감정적이고 직관적인 판단을 무의식적으로 내리게 된다. '맞아? 틀려?'라는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판단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일단 '좋아'라는 인식이 들면 '맞아'라는 판단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대화의 상대방이 '안전하다', '믿을 만하다'는 인식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상대방과의 긴장 관계를 편안하게 이완시키고, 생각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었다면 '라포(Rapport)'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라포는 프랑스어로 '다리를 놓다'라는 의미다. 심리학에서는 상대방과 어느 정도 상호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를 지칭한다. 높은 수준의 신뢰는 아니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방어기제를 제거하고 '중립적 또는 친근함을 갖는 수준'은 되어야 한다. 그래야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신뢰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표정, 말투, 반응'에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ACTION 1 거울은 절대 먼저 웃지 않는다!

미소는 빠르게 전염되는 속성이 있다. 기분이 좋아서 웃을 수도 있지만, 먼저 웃으면 긍정 감정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미소를 넘어 악수와 하이파이브, 손을 들어 상대를 인정하는 제스처를 사용하는 것은 신뢰를 쌓는 데 효과적이다.

ACTION 2 나의 배꼽 방향을 맞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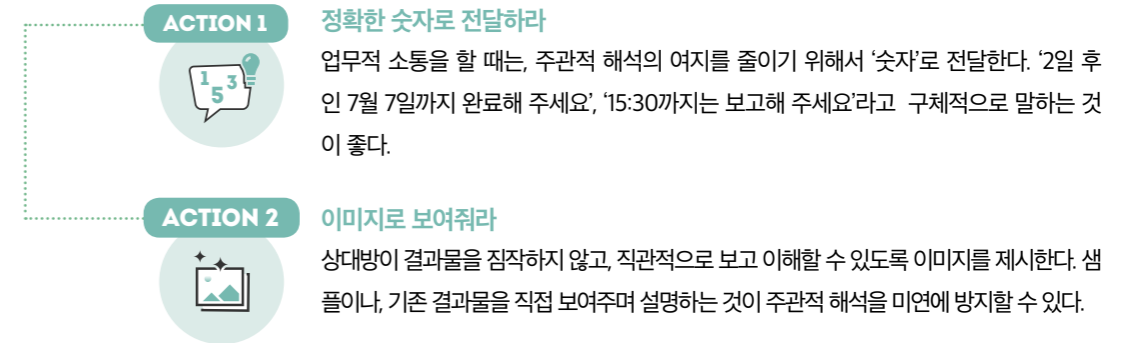
상대방과 눈을 맞추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배꼽 방향이 상대방을 향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몸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온전하게 집중하고 경청하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ACTION 3 존중의 언어를 사용한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표현할 수 있는 '적합한 호칭과 경어'를 사용해야 한다. "맞아요! 그리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속상하셨겠네요" 등 상대를 인정하고 공감하고 있다는 표현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CHAPTER. 2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지 않도록 명확하고 솔직하게 소통하라!

'상대방은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모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접근해야 한다. 상대방이 무관심하거나 무지해서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저맥락 사회인 서양의 매뉴얼을 보면, '뭐 이런 거까지 설명했나'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다. 이 점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ACTION 1 정확한 숫자로 전달하라

업무적 소통을 할 때는, 주관적 해석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 '숫자'로 전달한다. '2일 후인 7월 7일까지 완료해 주세요', '15:30까지는 보고해 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다.

ACTION 2 이미지로 보여줘라

상대방이 결과물을 짐작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제시한다. 샘플이나, 기존 결과물을 직접 보여주며 설명하는 것이 주관적 해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소통 상황에 따라 자신의 감정과 원하는 기대치를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프로이트는 인간 정신을 빙산 모델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빙산의 특징은 수면 위에 드러나 관찰과 측정 가능한 부분은 전체 중의 5% 미만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수면 아래 잠겨 있다는 점이다.

이를 소통 상황으로 이해하자면, 수면 위의 드러난 부분은 상대방의 '말과 행동'으로 사실(Fact)로 볼 수 있으며 파도가 칠 때 조금씩 드러나는 부분은 상대방의 '감정(Feeling) 상태'이다. 수면 아래 잠긴 부분은 상대방의 '의도에 해당하는 동기와 가치'로 관심사(Focus)이다. 그 의도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소통을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다.

ACTION 1 감정과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나(I) 메시지'

"저는 그때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이번에 꼭 ## 했으면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 좋더라고요" 등 내 입장에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반대로 'You(너) 메시지'를 사용하면, 자칫 상대를 질책하거나 비난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ACTION 2 텍스트의 오류를 이모티콘으로 막자!

비대면 상황에서도 종종 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텍스트로만 전달될 때 다소 딱딱하거나 무미건조해 보일 수 있는 메시지 대신 이모티콘을 활용해 보자. 간결하지만 '감정 소통'을 오류 없이 전달하도록 돕는다.

하이터치 소통 방법의 실천이 어렵다고, 누군가에게 긍정에너지를 주기 어렵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무재칠시(無財七施)'라는 불교 용어가 있다. 돈을 들이지 않고도 타인에게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7가지를 이르는 말이다. 밝은 미소, 공손하고 아름다운 말, 양보하는 마음, 따뜻한 눈빛, 친절함 태도, 자리 양보, 편안히 쉴 공간 제공하기를 의미한다. 우리의 일터와 삶터에서, 실천할 때가 분명하다.

블라인드 단체 특방이 열렸다!

성장을 복돋는 한마디 VS 의지를 꺾는 한마디

그룹채팅3

튜브속튜브님이 들어왔습니다.
박하사탕님이 들어왔습니다.
Jay님이 들어왔습니다.

* 솔직하고 거리낌 없는 소통을 위해 세대와 이름을 감춘 채 닉네임으로 진행

심팩인을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선한 말말말!

MC 토크 워밍업 질문 하나 던질게요! 평소 회사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뭘까요?

“넵!” 이 말이 아닐까요? 넵뽏 같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일을 하면서 제일 보편적인 답인 것 같아요. 간결하잖아요. 물론 오류가 있는 지시를 수행할 때는 반드시 문제점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려고 하는 편이에요.

박하사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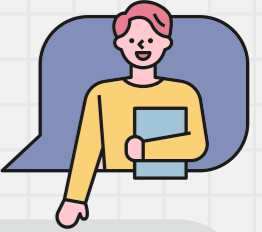
“(한숨 쉬어서) 네!!” “혹은 알겠습니다!”저도 두 말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요 청이나 지시를 한 상대방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꼭 오늘은 다 해내고 말겠다는 스스로 다짐이기도 해요. 어찌다 보니 예스맨이 되어 가네요.

튜브속튜브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를 자주 써요. 하던 일들 때문에 당장 연락 온 걸 처리할 여건은 안될 때도 있고, 결정에 대해 100% 확신이 없을 때 쓰게 되는 것 같아요.

Jay

회사를 다니다 보면 상사나 동료의 말 한마디에 에너지를 얻기도 하고 영혼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말말말!에 대해 심팩인들의 솔직한 생각을 들어보기 위한 익명 단체 특방이 열렸습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한 블라인드 토크가 지금 시작됩니다.



MC

회사 생활 하면서 한 걸음 나아가게 했던, 힘이 된 동료의 한마디가 있을까요?

“야! 나도 그랬어. 너무 자책 하지 마.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만 안 하면 되는 거야!!” 동료나 상사와 동질감을 느낄 수 있어서 나름 저에게는 좋은 격려였던 거 같습니다.

박하사탕

Jay

저도 비슷합니다. “처음부터 잘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배워 가는 거야~ 다음에 더 잘하면 돼” 제가 부족하지 않다고 얘기해 줬던 게 큰 힘이 됐어요.

저는 능력을 인정받았던 순간이 생각나네요. “어떻게 이런 것도 알아? 대단한데!”라고 했던 칭찬을 힘이 들 때마다 떠올리며 에너지를 얻고 있어요.

튜브속튜브

MC

선배로서 신입사원이 쑥쑥 성장할 수 있는 보약 같은 한마디 투척한다면?

“잘하고 있어요”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누구나 처음부터 모든 것을 잘 해낼 수는 없잖아요. 아주 작은 성과를 올렸을 때도 충분히 잘한다는 응원이 필요해요.

박하사탕

튜브속튜브

정말 좋은 말이네요. 선배의 한마디에 힘을 얻어 자신감을 갖고 능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신입 때가 생각나네요.

그리고 “물어보세요”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질문을 하면, 선배가 겪었던 시행착오와 오류를 덜 겪을 수 있는 노하우를 알 수 있게 되고, 처음이라 느꼈을 막연한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으니까요.

박하사탕



Jay 박하사탕님 왠지 좋은 선배일 듯! 저는 “너무 어려워 마. 다 너랑 똑같이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니까 편하게 생각해”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다 똑 같은 직장인이라고 생각하면 선배들한테 다가오는 것도 좀 쉽지 않을까요?

튜브속튜브 그렇네요. 신입일 때는 모든 게 낯설고 어렵기만 해요. 세상을 좀 만만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말이지! 저는 상투적이지만 “이 또한 지나갈 거야~”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초년생이기 때문에 일도 실수도 뭐든 크게 받아들여지거든요. 누구나 지나치는 길목과도 같은 순간들이니까 마음을 좀 편하게 먹었으면 해요.

그룹채팅3

심팩인을 뒷걸음치게 만드는 나쁜 말말말!

MC 회의 중, 아이디어나 의견을 냈을 때 입들막 하게 했던 한마디가 있죠?

박하사탕 있죠! “이미 해봤던 거고, 실패했던 거예요”라고 아이디어를 딱 잘라 생각의 갈래를 원천 봉쇄하는 게 문제라고 느껴요. 무조건 해도 안 되는 아이디어라는 식의 말보다는 이전 시도에서 배운 것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줬으면 해요. 그래야 여러 방식으로 접근하면서 긍정적인 제안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Jay 회의라는 게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거잖아요. 저 역시 “그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말하는 선배에게 “어떤 부분 때문예요?”라고 물었더니 “글쎄, 아닌 것 같아. 다시 해봐”라는 답이 돌아왔을 때가 있었어요. 개선 방향도 없이 그냥 다시 해 오라는 거! 좀 무책임한 것 같아요.

튜브속튜브 저는 여러 사례를 토대로 제 의견을 말했는데 “거긴 거기고, 타사 비교 금지!”라고 하시는데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벤치마킹하는 것이 잘못된 걸까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습니다. ㅜㅜ

MC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찬물 끼는 말도 있을까요?

박하사탕 “너 지금까지 뭐했어?” 이 말이 정말 힘 쭉-욱 빠지게 하더라고요. 나를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다른 분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았나 봐요. 현업 담당자는 하나의 업무를 수행하며 여러 어려움을 해결해 가고 있는데 결과만 보고 과정을 무시하면 일할 맛이 안 나죠. 이때 보통 ‘라떼 시전’이 시작되죠!

튜브속튜브 라떼까지!! 듣기만 해도 힘 빠집니다.

박하사탕 얘기하다가 당 떨어지네요. ㅋㅋ

튜브속튜브 저는 업무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말을 계속 끊을 때 의욕 상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일이 아니라 **인격에 대해 무시하는 발언**을 들으면 오후 내내 일이 손에 안 잡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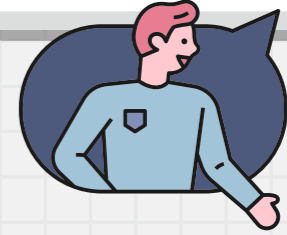
Jay 회사에서 왜 인격과 배경에 대해 들어야 하는지 저도 이해가 안돼요. 그건 상대방을 해하는 말입니다.

박하사탕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등의 발언들은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못하는 말이에요.

Jay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에 너무 힘 빠지시면 안 됩니다! 퇴근 30분 전, “급한 일이 생겼어!”

오 마이 갓! **튜브속튜브** **박하사탕**

Jay 이 말이 메시지에 뜨면 무릎에 힘이 빠져 주저 앉게 되더라고요. 요즘 중.꺼.마(중요한 것은 꺼이지 않는 마음)라고 하는데 퇴근 30분 전 자꾸 이러면 진짜 의지가 꺼이고 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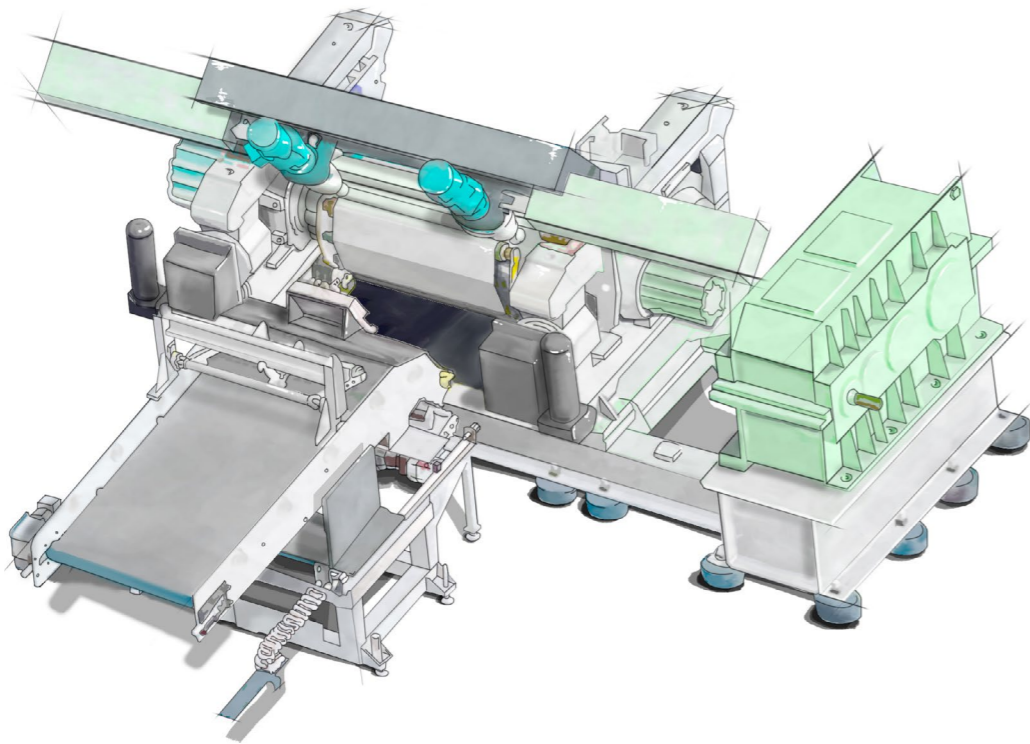
‘회사생활 속 말말말!’을 주제로 펼쳤던 3인의 블라인드 토크, 어떻게 보셨나요? 격하게 고개를 끄덕인 심팩인도 있을 테고, 마음이 뜨끔했던 선배도 있었을 텐데요. 동료 를 일으켜 세우고, 힘을 주는 말들은 화려한 미사여구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토크 속 선한 말들을 오늘 바로 동료에게 건네 보는 것은 어떨까요?



생산성은 높이고, 작업환경은 개선하다

SIMPAC인더스트리는 고무, 플라스틱 관련 생산 설비 전문 제작 업체로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설비를 제작, 설치하고 있다. 설계 부서에서 고객 니즈에 맞게 설계한 후 SIMPAC인더스트리 및 협력업체를 통한 부품 가공과 제작을 거쳐, 생산팀에 의해 조립되어 고객사에 납품된다.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등 타이어 제조사와 KCC, LX하우시스 등 PVC 바닥재 제조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서 오더 메이드로 제작된 SIMPAC인더스트리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Auto Mixing System(AMS)



Auto Mixing System(AMS)은 2017년 고객사의 자동화 문의 및 일본 수입 설비의 일부 자동화 구현을 보고 전체적인 시스템을 구상하여 도입된 설비다. 세계 최초로 고무 및 PVC 혼련 공정을 자동화함으로써 제품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은 물론 작업 환경 개선에도 기여했다.



Batch별 품질 균일화
혼련 공정 자동화를 통해 매회
일정한 품질의 제품 생산



**작업자 안전 및
근로 편의성 향상**
기존의 열악하고 위험도
높은 공정을 자동화함으로써
작업 및 환경 안전 개선



생산성 향상
기존 대비 생산량 약
40% 향상, 불량률
약 50% 감소, 납기
준수율 약 60% 향상



**자동화를 통한
원가 경쟁력 향상**
동일 업무에 투입되는
인원 약 2/3로
절감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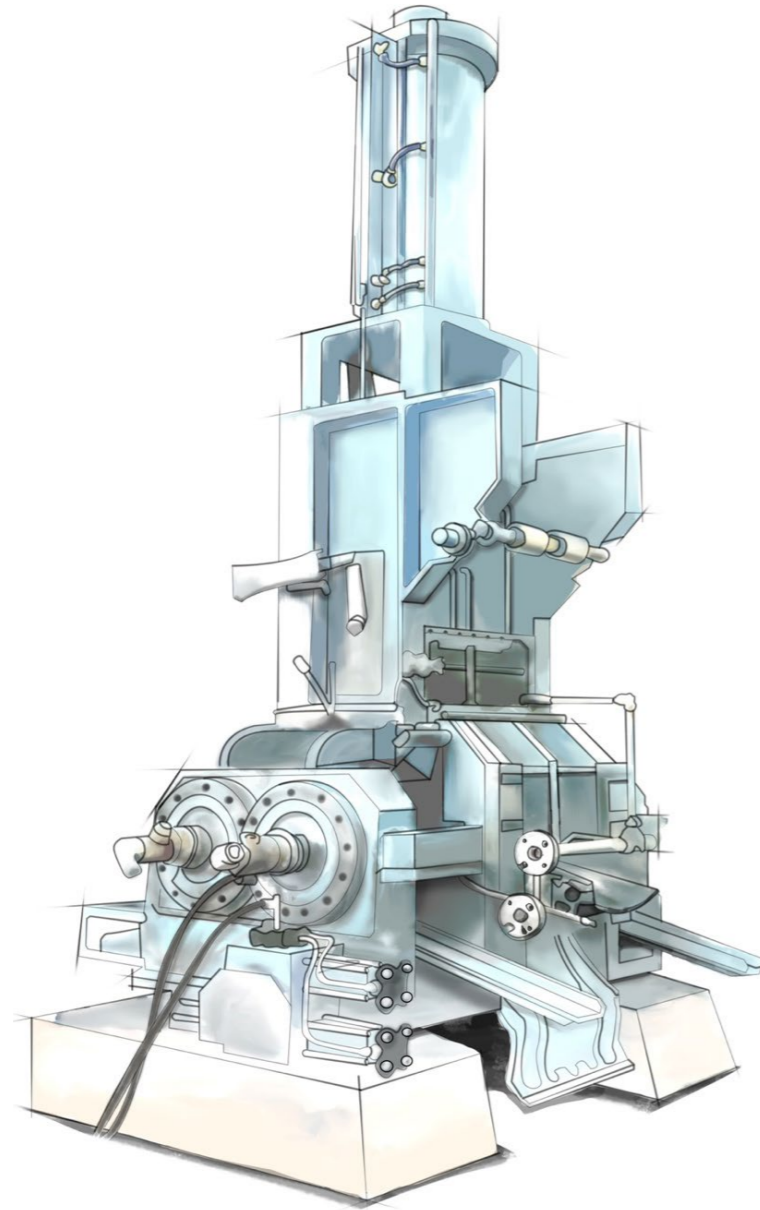
세계 최초 고무 및 PVC 혼련 공정 자동화 구현

Auto Mixing System(AMS)은 SIMPAC인더스트리의 기계적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고무 및 PVC 혼련 공정을 자동화하는 솔루션의 일종이다. '혼련'이란 고무 및 PVC 원소재에 특정 성질을 추가하기 위해 화학 약품을 투입해 믹싱하는 공정이다. 그간 고무, 플라스틱과 같은 고분자 화학 제품은 특유의 점착성 및 탄성으로 인해 혼련 공정 자동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지되어 왔다. 이에 작업자의 숙련도 및 기술 수준이 높아야 하고, 고무 및 카본 분진 등으로 인해 작업 환경도 매우 열악해 작업 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웠다. 또한 혼련 공정은 회전하는 두 개의 원통 사이로 고무 등을 넣어 섞는 방식이어서 작업 위험도가 매우 높다. AMS를 도입하면 이러한 작업을 자동화하여 생산 제품의 품질 안정화 및 작업-환경 안전 개선, 생산성 향상, 원가 절감 등을 실현할 수 있다. 또한 SIMPAC인더스트리 AMS는 고무 및 PVC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라면 다들 사용할 수밖에 없는 Mixing Mill이라

는 설비에 AMS를 액세서리 형식으로 개조, 적용하는 기술로써 고객사 입장에서는 신규 설비 투자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Mixing Mill을 사용하는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요코하마 타이어 등 타이어 제조사 및 KCC, LX하우시스 등 PVC 바닥재 제조사와 자동차 와이퍼, 웨더스트립, 오링 등 다양한 고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그 외 여러 기업들과 시스템 도입을 위해 준비 중이다.

각 기업별로 사용 중인 설비의 규격, 제품의 생산 방식에 따라 맞춤 설계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이기에 생산량 개선 정도 등에는 차이가 있다. 다만 기존에는 통상 1개 라인에 3명의 작업자가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AMS를 도입하면 2명만으로 작업이 가능하다. AMS를 도입한 한 고객사의 데이터에 따르면 기존 대비 일일 생산량 37.3%, 공정 불량률 45.7%, 납기 준수율은 63.7% 개선된 것으로 보고됐다.

SIMPAC Industries PVC Mixer Series



SIMPAC인더스트리에서 본격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시장에 PVC Mixer를 도입한 시기는 2015년부터다. 초기에는 내부 경화용접 재질의 선정, 밀폐성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수많은 시행착오 및 개선을 통해 현재는 어느 경쟁사보다도 우수한 믹싱 효과와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생산성 증대

4-Wing Rotor 적용으로
겔링 타임 15~20% 개선



설비 가동 수명 증가

내마모성 향상한 신소재 사용,
쉽게 교체 가능한 설계 방식 적용



분진 누출의 최소화

최적화된 Dust 구조
설계 및 Drop Door 형상
적용으로 밀폐성 향상하여
업무 환경 개선



오버홀을 통한 업무

연속성 확보
주기적인 설비 수리
진행으로 지속적인
매출 확보 가능

제품 성능 및 내구성 강화

+지속적인 관리의 강력한 설비

SIMPAC Industries PVC Mixer Series는 PVC 원료와 탄석 및 기타 약품을 믹싱하는 설비다. 본 설비로 믹싱된 소재는 이후 압연 및 가공 공정을 거쳐 장판, 데코 타일 제품 등으로 생산된다. 고객의 용도에 따라 다양한 사이즈로 제작되어 왔으며, 주로 사용되는 모델은 75L, 100L, 140L, 160L, 180L, 270L 등이다. 마모도가 높은 설비이다 보니 내마모성이 향상된 소재를 사용하고, 부품 교체가 용이한 설계 방식을 적용하여 설비 수명을 기존 1년에서 1.2년 정도로 증가시켰다.

PVC Mixer의 핵심은 '오버홀(Overhaul, 기계 시스템의 점검)'을 통한 업무 연속성 확보에 있다. PVC Mixer를 사용하다 보면 PVC와 돌을 섞는 과정에서 내부 공간의 마모가 매우 극심하게 발생한다. 때문에 보통 1년에 1회 해당 설비를 분해하여 수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은 단순히 일부 일반 부품을 교체하는 것이 아닌 대부분의 주요 부품을 새로 제작하여 교체하는 것으로, 가격으로 보면 신제품의 70~80% 정도에 해당한다. 직접 설계한 제품 도면을 SIMPAC인더스트리에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당사를 통해서만 수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꾸준한 업무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다. 신규 투자가 많지 않은 요즘 시장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제품은 특별 설계된 4-Wing Rotor를 적용하여 생산속도

가 이전 대비 약 120% 증가했다. PVC는 평소에 딱딱한 물성을 지니지만 열을 가하면 녹아 GEL처럼 되는데 이를 겔링이라고 한다. 겔링이 되어야 PVC를 같이 투입된 탄석, 약품들과 섞을 수 있기에, 겔링 타임이 빨라지면 생산량이 증가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 1Batch 시간은 약 5분으로 5분마다 약 150kg의 소재가 배출되었다면, 4-Wing Rotor 적용 후에는 겔링 타임이 약 4분으로 줄어 4분마다 150kg의 소재 배출이 가능해져 1시간에는 2Batch, 약 300kg을 더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고객사별 PVC 소재 종류, 탄석 및 약품 첨가제의 양, 이후 가공 방식에 따른 배출 방식, Mixer 용량에 따라 생산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해당 설비는 밀폐된 챔버 안에서 PVC와 탄석, 약품을 으깨어 고열로 믹싱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매우 높은 압력이 발생한다. 압력으로 인해 설비의 빈틈을 통해 분진이 누출될 수 있는데, 이 분진은 작업 환경 및 건강에 매우 유해한 물질이다. 또한 분진 누출로 인해 적절한 배합 비율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래서 내부 압력은 유지하되 분진이 누출되지 않는 밀폐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믹싱된 소재가 배출되는 Drop Door도 틈새가 발생할 수 있는 부위로서, 해당 부위를 밀폐하고 기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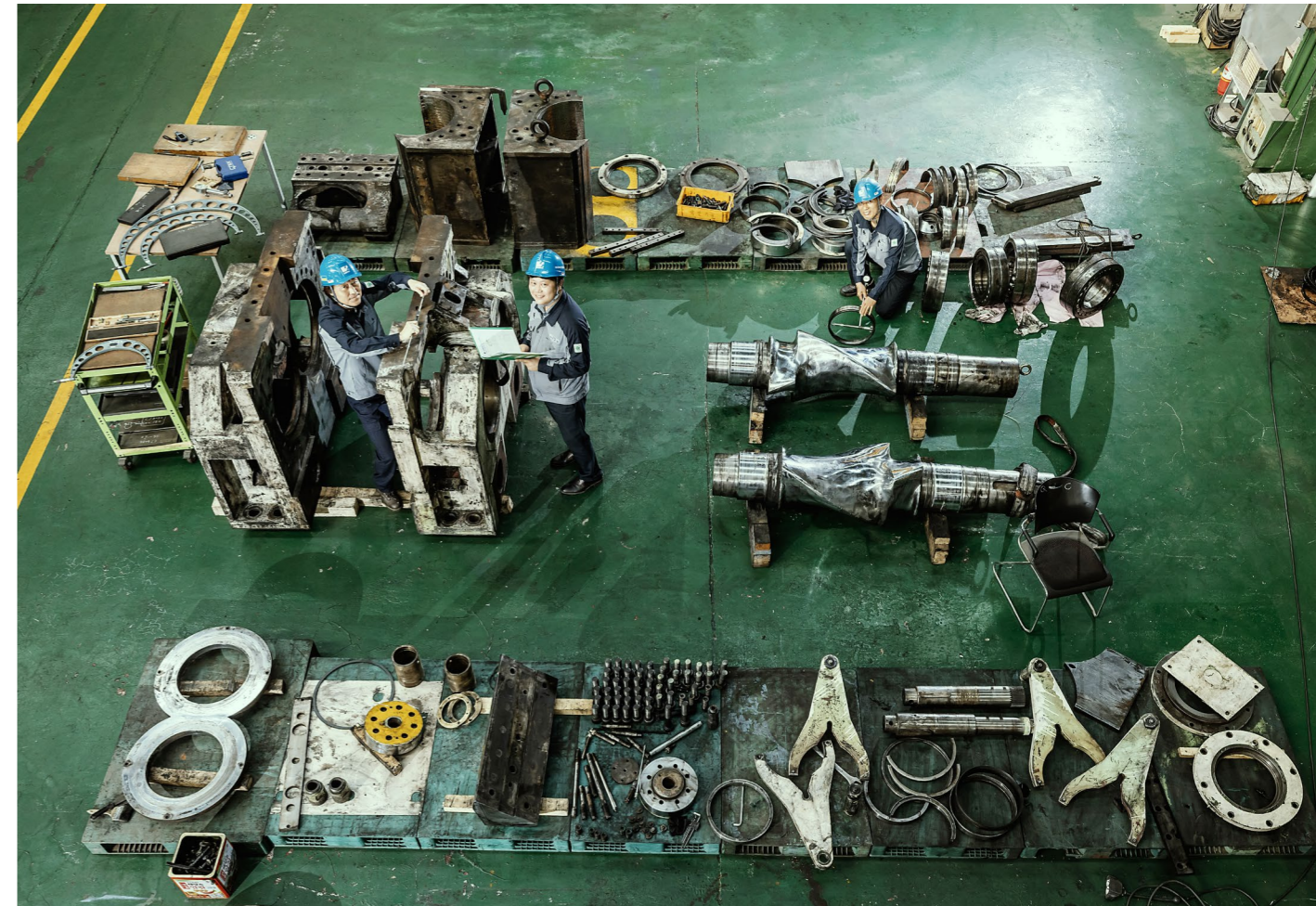
함께 뛰는

한 / 컷 화보1 심팩



함께라서 힘들지 않아!
따뜻한 봄과 여름 그 사이
5월의 어느 날. 한동안
흐렸던 먹구름이 화창하게
개고, 환한 날씨에 관스레
더욱 힘이 나는 하루입니다.
현장에 나가 매일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업무를 하는
직원들을 대표해 생산팀
변석진 매니저(왼쪽)와
안전팀 전화영 선임
(오른쪽)이 한 컷 화보
주인공으로 나섰습니다.
항상 서로를 응원하며
열일하는 SIMPAC홀딩스
리스텍비즈 1공장 직원들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매순간
안전을 최우선으로, 매년
발전해가는 SIMPAC홀딩스
리스텍비즈 1공장이 되기
위해 오늘도 힘을 내봅니다.
SIMPAC홀딩스 리스텍비즈
1공장 파이팅!

SIMPAC홀딩스 리스텍비즈 1공장 변석진 매니저, 전화영 선임



고객사의 니즈에 맞춘 주문 제작 방식 꾸준한 R&D로 기술 저변을 넓혀 나간다

SIMPAC
인더스트리
산업기계BU

모든 제조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주조산업계에서 SIMPAC인더스트리 산업기계BU는 오랜 세월 최고의 자리를 지켜왔다. 1980년대부터는 외산 제품이 시장을 독점하던 고무화학 산업기계 분야에서 관련 기계 국산화의 선봉장으로 나서며 대한민국 주조산업을 이끌고 있다. 우수한 주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산업기계용 부품을 생산하면서 자체적으로 산업기계를 생산하고 있는 가운데, 기술 제안과 R&D부터 설계, 조립, 설치, A/S까지 산업기계 제작과 납품 관련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다. SIMPAC인더스트리 가좌1공장을 찾아 작업 현장을 둘러보고, 이들의 업무와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들어보았다.

**타이어, 바닥재 제조사부터 소규모 공장까지
고무, PVC 등 고분자화학 소재 제품을 만드는 업체에 산업기계 납품**

SIMPAC인터스트리 산업기계BU가 만드는 모든 산업기계들은 주문 제작 방식으로 생산된다.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등 타이어 제조사, 바닥재와 타일 등 인테리어 자재를 만드는 KCC, LX하우시스 등, 그리고 고무와 PVC가 들어가는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여러 업체들이 이들의 고객사다. 업체마다 제작하는 제품별로 실리콘, 우레탄 등 소재 배합 비율이 조금씩 다 다르고, 생산 공장의 크기, 견적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세부 설계에 들어가게 된다. Mixing Mill, Mixer 등 산업기계BU가 생산하고 있는 다양한 메인 설비를 각 고객사의 니즈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여 생산·공급하는 것이다. 현재 인천 가좌1공장에는 산업기계BU 직원 41명이 근무하고 있다. 부서로는 경영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관리팀, 국내외 영업과 기술 제안, 계약 관리부터 제품 설치까지 고객사와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영업팀, 전기와 기계 설계를 담당하는 설계팀이 있다. 그리고 18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생산팀에는 조립, 품질 관리, 구매 담당이 있다. 구매 담당은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를 관리하며, 조립 담당은 설계대로 제품을 조립한다. 품질 관리 담당은 납품 전후로 부품이 도면대로 잘 제작되었는지, 올바르게 조립되었는지 확인하고 A/S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 체크하는 역할을 한다.



**동종업계 국내 유일 R&D팀 운영
세계 최초 '고무 및 PVC 혼련 공정 자동화 시스템' 구현으로 주목**

SIMPAC인터스트리 산업기계BU는 국내 동종업계 기업 중에서 가장 큰 업체이자 유일하게 R&D팀을 운영하고 있다. 관련 소재나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자체 R&D팀을 통해 꾸준히 기술 개발에 매진함으로써, 고객이 요청하는 기계 성능에 맞춰 유연한 설계를 제안하고 제품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정 전체에 자동화를 구현하는 기술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고무나 플라스틱 재질의 경우 끈적이는 성질과 탄성이 있어 그간 공정 자동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어 왔으나, 최근 SIMPAC인터스트리 산업기계BU에서 세계 최초로 '고무 및 PVC 혼련 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구현해냈다. 차별화된 신기술 도입에 각 기업은 물론 정부에서도 이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관련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 공장들이 이 Auto Mixing System(AMS)을 도입하게 되면 작업 과정에서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음 물론, 제품 품질을 균일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원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중소기업청,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은 많은 기업들이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해당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다고 한다.





계약부터 납품까지 어떻게 진행될까?

SIMPAC인더스트리 산업기계BU의 계약 및 작업 유형은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뉜다. 첫 번째는 고객사가 공장을 새로 증설하는 경우다. 공장 증설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고객사와 어떤 기계 설비를 도입하여 공장의 어떤 자리에 어떤 순서로 배치할지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협의한다. 고객사가 만들고자 하는 제품에 따라 기계 구성부터 배치까지 최적의 라인을 짜기 위해 제안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에 맞춰 견적을 제출하고, 네고를 거쳐 계약에 이르는 과정이다.

두 번째는 기존 설비를 개조 또는 수정하는 작업이다. 앞서 말한 AMS 설비는 기존에 사용 중인 기계에 해당 부분만 추가하면 되는 방식인데, 이처럼 기계 일부를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이다. 필요한 경우 노후화된 일부 부품을 교체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버홀(Overhaul)’이라고 불리는 과정이다. 사용 기간이 길어지면 자연히 설비가 노후화되기 마련이라 주기적인 수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타일 공장에서 사용되는 기계의 경우 수명이 5~7년정도 되는데, 때가 되면 해당 기계를 다시 당사 공장으로 가지고 와서 분해하고, 대부분의 주요 부품을 교체한 후 다시 납품한다. 오버홀은 시기마다 꾸준히 진행되기에 업무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고 신제품의 70~80% 가격에 작업이 진행되어, 신규 투자가 많지 않은 시장 상황에서 매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기존에 계속 거래해오던 업체와 꾸준히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하나, 신규 거래처를 늘리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줄어들었던 글로벌 기업의 해외 공장 증설에 참여하고, 해외 기업들과의 거래를 확대하는 것도 목표다. 국내외 대기업부터 소규모 업체들까지 거래처를 다각화함으로써 일거리를 늘리고 사업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전략이다.

계약을 마친 후에는 R&D 과정을 거쳐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설계를 진행하고 도면을 작성한다. 경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설계에는 통상 1~3개월 정도 소요된다. 이후 부품 도면에 따라 구매 부서를 통해 협력업체에 부품 제작을 의뢰하고, 사내에서 제작할 수 있는 부품은 직접 제작한다. 부품이 입고되면 조립하고, 페인트칠까지 마쳐 완성된 제품을 고객사 공장에 납품한다. 납품 때는 제품을 조립한 엔지니어와 영업팀 직원이 함께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설비가 올바르게 설치됐는지 점검하고, 의도한 대로 작동되는지 생산 과정까지 체크한다. 이렇게 하나의 제품을 준비하고 납품하는 데까지 설비에 따라 4~8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한 달에 2~3대가량을 조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는 금호타이어의 Mixer를 수리하기 위해 분해해 놓은 상태이며, 다른 업체에 납품할 Mixer 조립과 오버홀 작업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한다.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는?

SIMPAC인더스트리 산업기계BU는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지속적인 일거리를 찾기 위해 여러 업체와 컨택하며 영업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기존에 꾸준히 거래해오던 업체들과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 중인데, 최대 고객사인 한국타이어의 미국 공장 증설 계획이 올해 3분기 내로 결정될 예정이라 이후 설비 제작 계약이 되면 내년 설치 시까지 바쁜 나날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 국산화를 목표로 하나둘씩 다양한 산업기계를 자체 제작해온 SIMPAC인더스트리 산업기계BU는 여러 기업에 Mixing Mill, TSR 등의 장비를 꾸준히 납품해왔다. 그중에서도 Mixer는 가장 하이테크놀로지의 설비이다 보니 아직까지도 많은 기업들이 독일이나 일본 제품을 선호하고 있어, 점유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타이어에 Mixer를 공급하며 현재 품질 검증 과정을 거쳐 시장 개척 중에 있으며, 앞으로 SIMPAC인더스트리 제품에 대한 기술적인 신뢰가 쌓이면서 더 많은 업체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IMPAC인더스트리
산업기계BU 생산팀
송재현 선임

감속기 부분의 생산 공정을 담당하며, 주로 조립 및 배관을 맡고 있다. 품질 관리와 납기에 중점을 두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
“1992년 입사하여 회사의 희로애락을 함께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회사의 성장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그랬듯이 명품 기계를 만든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SIMPAC인더스트리
산업기계BU 생산팀
김한중 선임

산업기계 조립 및 설치 시운전, A/S 대응을 담당한다. 일년에 절반 정도는 기계 설치 등을 위해 고객사 공장에 방문한다. 조립 불량이나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신경 쓰고 있으며 중장비를 다루는 업무만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
“저희 직원들 모두가 멀티플레이어 역할을 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최고가 되기보다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SIMPAC인더스트리
산업기계BU 영업팀
김용완 매니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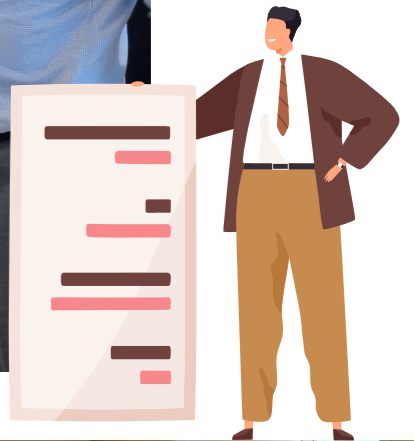
설비 사양을 협의하고 계약 과정에서부터 납품 현장까지 고객사와 소통할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현장에 방문하는 등 고객사와 생산팀 간 소통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신경 쓰고 있으며, 납품 후 제품에 대한 피드백을 체크하여 더 나은 기계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
“영업 활동을 하면서 저희 회사 제품이 고객사들에게 고객대응과 제품 품질 방 면에서 매우 인정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효율적인 제작 공정 환경을 갖춰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동료들을 서포트 하며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IMPAC그룹 DX 관련 인력 대상 특강 진행

지난 5월 18일 여의도 SIMPAC빌딩 15층 라운지에서 미시간 대학교 안현수 교수를 초빙해 'SIMPAC그룹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DX미션과 혁신 방향에 대한 인사이트'와 'Global 디지털 전환 트렌드 및 선진기업 사례'를 주제로 DX 특강이 진행됐다. 이날 강연에는 PI팀, IT팀 외 SIMPAC그룹 내 DX 관련 인력 약 50명이 참석했다.

SPECIAL



디 지 털 전 환 기 문 제 극 복 을 위 한 과 제 는 ?

강연은 먼저 '디지털 전환 과도기 극복을 위한 과제'로 ▲사업마다 어떤 경쟁력으로 시장에서 승부할 것인가 : Target과 방향설정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조직원들이 효용감과 효과를 느끼게 할 것인가 ▲회사의 미래를 위한 변화에 필요한 인력과 환경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안현수 교수는 Digital Transformation을 위해서는 현명함이 필요 하다면서 중견기업은 Resource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소중한 총알 6발을 정확히 쏘야 한다고 강조했다.



LECTURE

디지털 전환 성공을 위한 4가지 주요 원칙

안현수 교수는 또한 ①비즈니스 모델과 디지털 전환의 방향이 일치해야 한다 ②기술과 사업 양쪽 영역을 연결해주는 Ambassador를 만들어야 한다 ③작고 적절한 디지털 문제들부터 시작해야 한다 ④고객경험과 실무직원의 관점에서 생각하라는 '디지털 전환 성공을 위한 4가지 주요 원칙'을 제시했다.

첫 째

'비즈니스 모델과 디지털 전환의 방향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은 사업군마다 그리고 사업군 내에서도 성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다르기에 디지털 전환 방향도 그에 맞춰 가야 한다는 의미다. 기능적(Functional) 모델과 혁신적(Innovative) 모델은 서로 다르기 마련이다. 기능적 모델은 비용을 낮추고 생산성을 높이는 효율성(Efficiency)이 중요 시되고, 혁신적 모델은 품질과 다양성, 서비스, 조달 기간 등 응대력(Responsiveness)이 중요하다.

둘 째

기술과 사업 양쪽 영역을 연결해주는 Ambassador를 만들어야 한다. 디지털 전문가와 현업 전문가 간에 의사소통 이슈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Ambassador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무엇이 해결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은지를 정의하는 역할을 한다. 현업 전문가는 디지털 전문가가 풀 수 있는 형태로 현업의 문제를 정의하고, 디지털 전문가는 현업에서 중요한 이슈가 무엇이며 의사결정은 누가, 어떻게 하는지 파악하여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데이터가 완벽하게 갖추어졌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며, 알고리즘에도 에러는 존재한다. 또한 문제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데이터가 다르고, 평균 데이터라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때문에 변화 관리를 위해서는 회사 및 조직 내 'Champions', 'Helper'의 비중을 높이고, 'Resister'와 'Bystander'를 최소화해야 한다.

세 번째

작고 적절한 디지털 문제들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문제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문제부터 정의해야 한다는 의미다. 생산성(Productivity)과 성과(Performance) 관점에서 접근하여 자주 발생하며 반복되는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생산성은 더 빠르면서도 문제가 덜 발생하도록, 성과는 % return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고객 경험과 실무 직원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데이터에는 표준화와 완전성의 이슈가 있는데, 조율(Coordination)과 협업(Collaboration)이 문제를 푸는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이다.



사업군별 과제 토의 시간을 통해 생각과 의견 공유

한편, 이날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군별로 모여 4개의 과제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얼마를 더 투자할 것인가', '알고리즘을 도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몇 인분을 더 준비할 것인가', '어떤 예측 모델을 믿고 어떤 방향으로 투자할 것인가' 등 선택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나눴다.

안현수 교수는 디지털 전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단순히 기술 발전을 위함이 아니라 당면한 문제를 풀기 위함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둔다면,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강연을 마쳤다. 이날 강연과 토의를 통해 익힌 내용을 바탕으로, 참여 임직원들이 앞으로 사내 DX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더운 날 임직원들을 응원하기 위해

시원한 음료와 간식 배달 왔어요~



유난히 후덥지근하던 6월의 어느 날, 무더위 속에서도 조업에 한창인 임직원들을 응원하기 위한 커피차가 메탈BU 포항1공장을 찾았다. 사보 신규 코너 '배달 왔어요'를 통해 시원한 카페 음료와 달콤한 머핀을 선물 받은 포항1공장 직원들의 모습을 들여다보자.



공장 내에서 만나는 시원한 카페 음료 한 잔

6월 7일, SIMPAC 메탈BU 포항1공장에 파스텔 톤의 예쁜 트럭이 한 대 도착했다. 트럭의 정체는 바로 연예인들에게 선물이 들어가곤 한다는 커피차! 이날 커피차를 받은 주인공은 메탈BU 포항1공장에 근무하는 전 직원이다. 아메리카노와 카페라떼는 물론 복숭아, 청포도, 자몽, 레몬 아이스티 등 음료 중에서 원하는 메뉴를 골라 주문할 수 있었고, 초콜릿 칩이 가득 박힌 달콤한 머핀까지 하나씩 받아갈 수 있도록 준비했다. 11시부터 차례대로 점심식사를 마친 임직원들은 물론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얼음 가득한 시원한 음료 한 잔씩을 받아가며 잘 마시겠다는 인사를 전했고 응원 문구로 장식된 커피차 앞에서 인증 사진을 찍기도 했다.

가장 먼저 커피차를 방문한 생산지원팀의 임창재, 최규석 매니저는 “평소에는 보통 점심식사를 마치고 나면 휴식을 취하거나 운동을 하는 등 각자 취미활동을 하는 편인데, 오늘 이렇게 커피차가 오면서 특별한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좋다”면서 “저희 공장은 뜨거운 전기로 앞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아 특히 여름에 작업이 힘든데, 오늘 사보 이벤트 덕분에 아이스 커피 한 잔 하며 더위를 잊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힘내서 업무 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소감을 전했다. 또한 “이벤트 덕분에 동료와 함께 사보에 실릴 사진도 찍게 되어 평생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며 앞으로도 종종 이런 이벤트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Delivery



시원한 음료를 한 잔씩 손에 든 김혜미, 김현정, 배진경 매니저는 “공단 지역이다 보니 주변에 카페가 없어서 카페 음료를 마시기 위해서는 차를 타고 10분 이상 가야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사무실에서 그냥 얼음을 얼려 아이스 커피를 만들어 먹곤 했는데, 오늘 커피차 이벤트 덕분에 멀리 갈 필요 없이 회사 안에서 시원하고 달달한 음료를 마실 수 있어 좋다”는 소감을 밝혔다.

회사 안에서 시원하고 달달한 음료를 마실 수 있어 좋아요



점심식사를 마치고 커피차를 찾은 송호석 부회장도 직원들을 위해 포항1공장에 커피차가 찾아와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 “이제 막 더워지기 시작하는 시기인데 오늘 이렇게 시원한 음료 한 잔씩 하면서 더위를 이겨냈으면 좋겠고, 힘내서 안전한 생산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시원한 음료 한 잔씩 하면서 더위를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전기로의 열기를 씻어낼 얼음 가득 음료 배달 완료

업무로 바빠 커피차 대기 줄을 기다리지 못하고 현장으로 복귀한 직원들을 위해 커피와 머핀을 들고 작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기도 했다. 먼저 제어실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배달을 마친 후, 현장 대기실에도 커피를 전달했다. 전기로 직원은 365일 12시간씩 4조 2교대로 근무하는데 이날은 황상용 주임을 비롯한 전기로 D조 직원들이 근무 중이었다. 페로망간, 실리망간 등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강도 높은 작업을 수행하며, 전기로에서 용융된 용탕을 출탕하고 나머지 부산물을 분리하는 것이 이들의 주된 역할이다. 전기로 직원들은 1,000도에 이르는 쇠물이 뿜어져 나오는 공간에서 작업하는데, 한여름에는 무더위에 전기로의 열기가 합쳐져 체력적으로 지치고 힘들다고 한다. 황상용 주임과 직원들은 “업무 특성상 딱 정해진 점심 시간이 없다 보니 작업 흐름에 맞춰 쉴 수 있을 때 빠르게 점심 식사를 하고, 돌아와서 잠깐 쉬면서 다음 업무를 준비하곤 합니다. 뜨거운 전기로 앞에서 일하다 너무 힘들면 대기실에 와서 잠깐 에어컨 바람을 쐬고, 다시 일하러 가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평소 실 때는 그냥 믹스 커피를 타 마시곤 했는데, 오늘은 덕분에 공장 내에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게 됐네요”라며 이런 이벤트가 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음료 한 잔에 작은 간식일 뿐이지만 ‘배달왔어요’ 커피차 이벤트를 통해 직원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고 사기를 높이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 다음 호 커피차 배달을 받게 될 현장은 어디일지 기대해 보는 것은 어떨까?

ZOOM IN

SIMPAC 메탈 & 페로실리콘BU 임직원들이 함께한 2023 철강 마라톤 & SIMPAC 어울림 한마당

SIMPAC 메탈&페로실리콘BU 임직원들은 5월 20일 오전, 한국철강협회에서 주관하는 2023 철강마라톤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미사 경정공원에 방문했다. 오전 마라톤 행사 이후에는 별도로 SIMPAC 어울림 한마당을 진행하여 임직원 간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다짐하는 화합의 장

이번 철강 마라톤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2019년 이후 4년 만에 재개됐다. 40개사 4천여 명이 참여한 큰 행사로, 올해 대회는 팬데믹(전염병 대유행)과 자연재해 등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그린철강 시대로 나아가는 비전을 담아 '도약하는 철강산업, 그린철강 대한민국'을 구호로 내걸었다. 이날 철강 마라톤 행사에는 송효석 부회장을 포함해 서울, 당진, 포항지역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약 60여 명이 참여했으며, 도약하는 철강의 의미를 전하고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다짐하며 우정과 화합의 장을 열었다. 또한 플로깅과 취약계층 대상 기부 이벤트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하여 그린철강의 뜻을 더했다.



SIMPAC 어울림 한마당으로 모두가 하나 되는 시간

오전 마라톤 행사 이후, 오후에는 같은 장소에서 SIMPAC 어울림 한마당을 진행했다. 어울림 한마당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재개되었다. SIMPAC 메탈&페로실리콘BU 임직원이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족구, 줄다리기, 왕발달리기, 공 튀기기 등 게임을 진행하며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게임 우승팀, 준우승팀에게는 상품이 주어졌고, 개인 경품 추첨을 통해 게임의 재미와 흥미를 더했다. 어울림 한마당 행사는 임직원들이 다양한 게임을 함께하며 서로 협동하고,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게임과 더불어 점심식사도 함께 하면서 서로 더 가까워지며 두터운 정분을 쌓을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단체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임직원들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ZOOM IN

메탈BU 포항1공장 구내식당 리모델링

지난 4월 8일 SIMPAC 메탈BU 포항1공장 구내식당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재오픈됐다.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침수 피해를 입은 후 약 7개월 만이다. 사계절 무더운 환경에서 조업 중인 직원들이 더욱 쾌적해진 공간에서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힌남노 피해

지난해 태풍 피해 이후 구내식당 리모델링 진행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가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를 뿌리며 포항을 관통했다. 이에 포항 공단 지역에서는 태풍 피해가 속출했고, 메탈BU 포항1공장 또한 공장 전체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특히나 구내식당의 경우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 식당이 모두 물에 잠겨버리는 바람에 리모델링 완공 전까지는 공장 주변에서 케이터링 형식으로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리모델링 전



리모델링 후

쾌적한 공간에서 든든한 식사로 건강한 여름나기

이번 식당 리모델링 공사는 전체적으로 밝고 깨끗하며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신경 썼다. 넓은 원목 테이블과 4인, 6인 테이블 등 다양한 테이블을 배치하여 다목적 회의도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24시간 교대근무로 돌아가는 공장 여건상, 식당은 아침/점심/저녁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요일은 격주로 휴무일을 갖는다. 구내식당에서의 식사는 임직원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은 특식을 제공하여 식당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맛있고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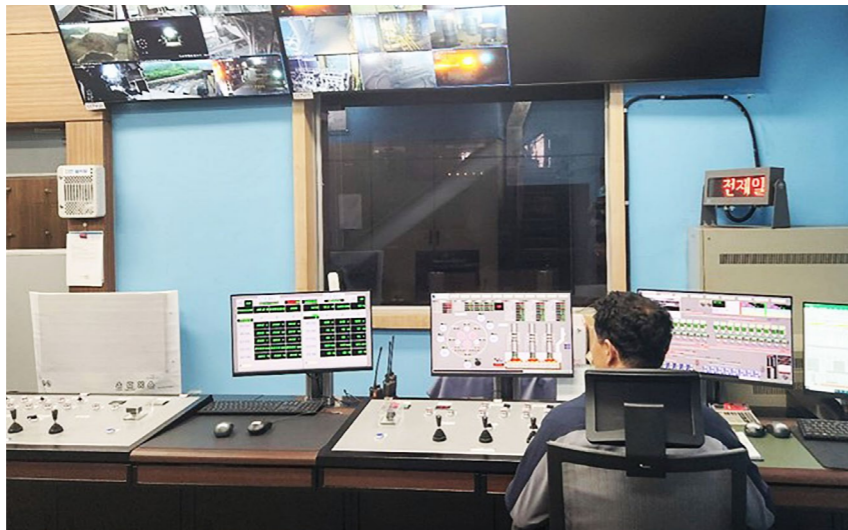
현재 구내식당은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과 위생관리, 온도 조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기 위해 식당 한켠에 마련된 세면대에서의 손세척도 안내하고 있다. 여름철 조업 시 무더운 환경에서 지치기 마련이지만, 깔끔하게 리모델링된 구내식당에서 영양가 있는 한끼 식사를 통해 임직원들이 힘을 내고 무더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SIMPAC 메탈BU 당진공장

1

SIMPAC 메탈BU 당진공장 조업 정상 가동



SIMPAC 메탈BU 당진공장이 지난 연말 불미스러운 사고 이후, 5월 2일 전기로 시운전을 시작으로 5월 12일 조업을 재개했다. 당진공장 직원들이 조업 정상화를 위해 생산, 설비, 안전, 지원 등 각 분야에서 정상화 복구작업에 신속히 대응한 결과 조업을 재개할 수 있었다. 현재 전기로 1기를 가동하여 고탄소 페로망간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량을 점차 늘려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당진공장은 최적의 생산을 통해 임직원 모두가 하나로 뭉쳐 원가절감을 이룰 수 있도록 나아갈 것이며, 안전한 일터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SIMPAC 메탈&페로실리콘BU 포항공장

2

철강관리공단, 대한적십자와 함께한 희망풍차 '사랑담은 맛 나눔터'



SIMPAC 메탈과 페로실리콘BU 포항공장 직원들은 지난 4월 매주 월요일마다 포항시 남구청 일대에서 대한적십자 포항지구협의회, 철강관리공단 직원들과 함께 무료급식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4월 3일, 10일, 17일, 24일 네 차례에 걸쳐 경제적인 문제로 끼니를 거르는 어르신 또는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한 한끼 식사를 대접했으며, 어르신 200여 명을 대상으로 정성껏 준비한 고깃국과 반찬을 배식했다.

무료급식 봉사활동에 참여한 봉사단은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며 잠시나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온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도 SIMPAC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읍/면/동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지역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상생할 것을 다짐했다.

SIMPAC인더스트리 산업기계BU

3

Mixer Overhaul 국산화 도입 성공, 한국타이어에 납품



SIMPAC인더스트리는 올해 6월 국내 1위 타이어 제조 회사인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 인도네시아 공장에 최초로 Mixer의 Overhaul을 국산화하여 성공적으로 납품, 설치했다. Mixer Overhaul은 설비를 공장에 반입 후 완전히 분해하여 수리, 제작을 통해 설비의 수명 및 품질을 새 설비와 유사한 수준으로 재탄생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Mixer는 타이어를 제조하기 위한 고무를 혼합하는 설비다. 타이어의 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설비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기술 및 경험의 부족으로 독일 및 일본으로부터 전량 수입하여 설치해 오던 품목이다.

한국타이어는 Mixer 설비의 제작 및 Overhaul의 국산화 기술 개발을 위해 SIMPAC인더스트리에 의뢰하여 지난 2021년 금산 공장에 국내 기술로 제작된 Mixer를 도입했다. 이후 2023년 현재까지 가동하며 개선된 사항을 적용하여 인도네시아 공장 Mixer의 Overhaul을 도입했다. 현재 제작 및 Overhaul 각 1기 투자를 통하여 Mixer 국산화의 가능성을 검증했고, 향후 아시아 공장(대전, 금산, 인도네시아)의 Mixer 및 Mixer Overhaul을 전량 국산화하여 확대할 계획이다. SIMPAC인더스트리에서는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및 국내 공장 30여 대의 Mixer 신작 및 Overhaul 점유율을 상당 부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음을 나누는

한/컷 화보2 **우리**

기대
글로벌 야드를
촬영해봤습니다.
푸른 하늘과 너른 공간이
다가올 내일을
기대하게 합니다.
선두에서 철 스크랩 시장을
이끌어갈 SIMPAC글로벌의
미래도 기대됩니다.
임직원 여러분
모두 파이팅 하세요!



SIMPAC글로벌 김명덕 과장

우리 회사에 '인생 네 컷' 등장?!

회사에서 만난 즐거운 심포



P H O T O T I M E



지난 5월 24일, 본사 1층 로비에 특별한 공간이 마련됐다. 시상식장에서나 볼 법한 포토월과 그 앞에 세팅된 즉석 카메라 '인생 네 컷' 기계, 사진 촬영에 곁들일 귀여운 소품들까지.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동료들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직원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PHOTO TIME

회사 로비로 찾아온 즉석 포토 부스

“엇? 이게 혹시 소문의...?” 이날 인생 네 컷 포토부스 이벤트 현장을 찾은 첫 번째 손님은 조립반 김대옥, 공근배 매니저. 점심 식사를 하러 가던 길에 이벤트 현장을 둘러보더니, 바로 어떤 콘셉트로 사진을 찍을지 작전 회의에 들어갔다. 네임 펜까지 빌려 서로의 얼굴에 그림을 그려주더니 익살스럽고 다양한 포즈를 취하며 인생 네 컷 촬영의 정석을 보여줬다. 두 사람은 “인생 네 컷은 가족끼리도 안 찍어봤는데, 오늘 사보 이벤트 덕분에 이렇게 동료와 같이 재미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어서 좋고 특별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라며 이런 좋은 취지의 행사가 자주 있었으면 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후로도 로비를 오가다가, 혹은 먼저 사진을 찍고 온 다른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진을 찍기 위해 삼삼오오 이벤트 현장을 찾았다. 직원들에게 이벤트 참여 소감과 '나에게 심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았다.



나에게

심이란

무엇인가?



홀딩스 IT팀 정철우 매니저 & 협력사 소속 오종호 과장 오랜만에 본사에 방문했는데, 마침 참신한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이번 기회에 같이 사진도 찍고 좋습니다.

“나에게 심이란, 총전이다”



품질경영팀 박종혁 & 생산팀 이규현 & 개발팀 유승규 매니저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작년 8월에 입사한 동기인데요, 덕분에 동기끼리 좋은 추억 남기게 되었습니다.

“심이란 재충전하고 리프레시하는 시간이 아닐까요?”

PHOTO TIME



해외영업팀 박승진, 조화란 & 전기설계팀 최희정 매니저
저(조화란 매니저)와 최희정 매니저는 동기이고, 박승진 매니저와는 같은 팀인데 어쩌다 보니 셋이 함께 찍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인생 네 컷 사진을 찍으니 아주 색다르고, 무료한 점심 시간 재미있는 이벤트가 되었습니다.

**“퇴근 후 재충전 시간.
맛집 탐방하러 가는 것도 좋아합니다”**



경영지원1팀 조한기 매니저
회사에서 인생 네 컷을 찍다니 색다른 경험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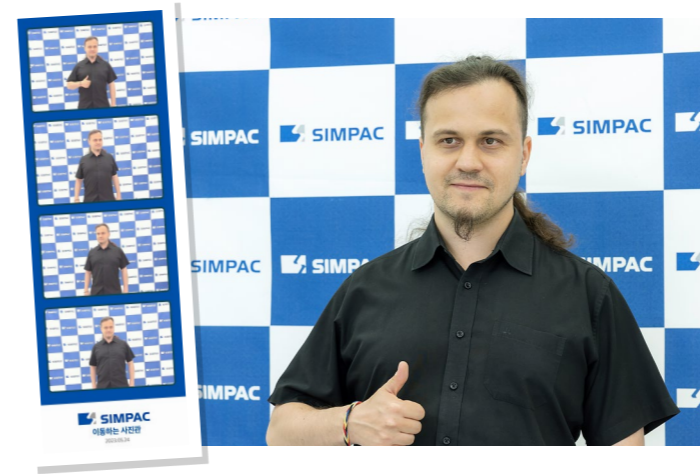
국내영업팀 남민국 매니저
평소에 이런 즉석 사진 찍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사내에서 찍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더 젊어지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다”



생산팀 김윤수, 문희상 & 품질경영팀 이예지, 황상원 & 경영지원1팀 오형석 매니저
동료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건 처음이라 색다르고, 귀엽게 잘 나와서 마음에 듭니다. 생각보다 재미도 있고, 화질도 좋네요! 덕분에 좋은 추억 쌓고 갑니다.

“지쳐 있던 몸과 마음에 여유를 주고, 머리를 비우는 시간”
“회사 생활의 원동력”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해외영업팀 니콜라이 매니저
사진이 아주 잘 나와서 좋습니다.
“집중 하다가도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생산팀 강성운 매니저
포토월 앞에서 사진도 찍고 연예인이 된 것 같아 신기합니다.

**“쿠키 파일을 삭제하고 나면
인터넷이 빨라지는 것처럼, 쉬고
나면 좀 더 빠르고 힘차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생산팀 유승우, 차유리 & 전기설계팀 김소현 & 품질경영팀 이예지 매니저
동료들과 함께 재밌고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나에게 쉼이란, 꼭 필요한 시간”



구매팀 전기태 & 외주관리팀 안준식 매니저
기계가 좋아서인지 사진도 잘 나오고, 점심 식사 후에 리프레시 하는 시간이 되어 좋았습니다.

“꼭 필요하지만, 찾기 어려운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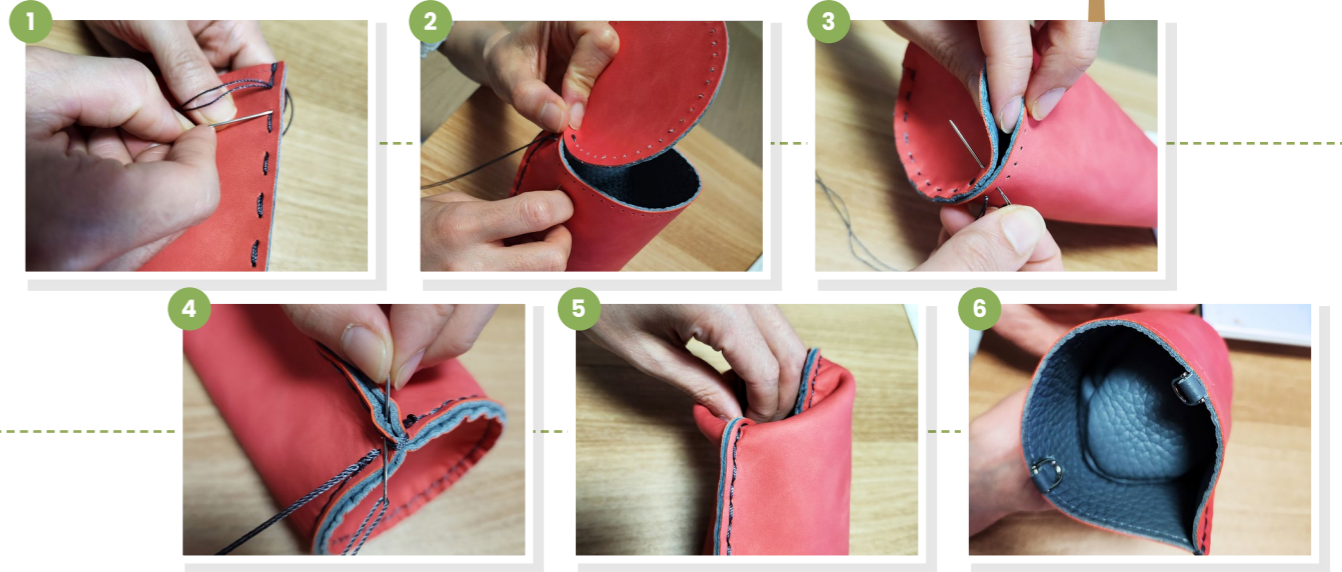
집에서, 가족과 함께 친환경 업사이클링 키트로 소품 만들기



SIMPAC 직원 및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특별한 코너, 우리집 D.I.Y 참여를 위한 키트가 직원들의 집으로 배달됐다. 이번에 직원들이 받아본 키트는 소파를 만들고 남은 자투리 가죽으로 만드는 텀블러 백과 폐유리로 만드는 냄비 받침이다. 가족과 함께 친환경 업사이클링 소품을 만들어 본 이벤트 당첨 직원들의 후기를 전한다.

D.I.Y

가족 텀블러 백 만들기



가족 텀블러 백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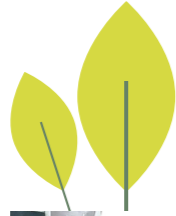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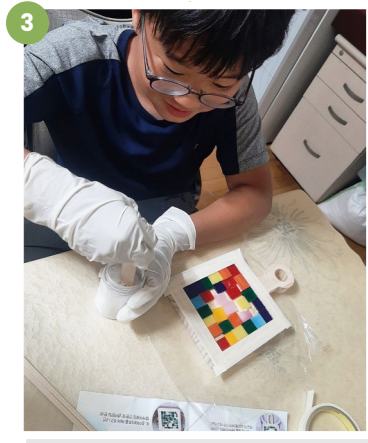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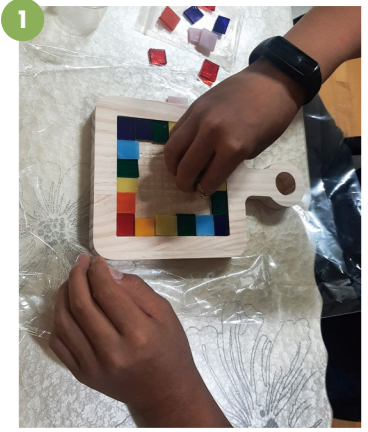
SIMPAC글로벌 조정래 매니저

우리집 D.I.Y 코너 진행 공지를 보고 좋은 기회다 싶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각자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 가족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할 일도 적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함께 D.I.Y 키트를 만들면서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주말, 가족 텀블러 백 만들기 D.I.Y 키트를 함께 만들어 보았습니다. 처음 하는 작업이라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 버벅대기도 했지만, 작업 방법이 상세히 적힌 설명서와 참고 영상을 보며 만들어 나갔습니다. 와이프와 투덕거리며 의견을 주고받고, 역할 분배를 하면서 뭔가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재미있고 의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점차 형태를 갖춰 나가며 텀블러 백이 완성되는 모습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또 한 번 참여하고 싶고, 사보 이벤트 덕분에 기분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텀블러를 들고 외출할 일이 생기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텀블러 백!! 좋은 이벤트로 즐거운 시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D.I.Y

냄비 받침대 만들기



냄비 받침대 완성!
다음에도 또 만들고 싶어요~!

SIMPAC 메탈BU 포항2공장 함선옥 매니저

만들기를 좋아하는 아들 생각에 우리집 D.I.Y. 코너에 참여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냄비 받침은 만들기 이후에도 직접 만든 작품(?)을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더 재미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실 준비물을 받고 나서 이것저것 바쁘다 보니 깜빡 잊고 있었는데, 마감일이 다 되어 가서야 '아차!' 하는 생각이 들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저녁을 먹고 식탁에서 만들기 키트를 꺼냈는데, 손재주가 없는 저로서는 약간 부담이 되기도 했지만 아이가 비슷한 것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다고 얘기해서 마음이 살짝 놓였습니다. 설명서를 참고하고, 아들의 가이드를 들으며 하나하나 순서대로 만들기를 시작했는데, 여러가지 색깔로 구성된 유리들이 배열되니 참 예뻐 보였습니다. 목공 풀로 유리를 고정시키고, 석고로 그 틈을 메운 후 이물질 제거하는 과정들은 끝나고 나니 걱정한 것이 민망할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직접 완성한 작품(?)을 보고 아들은 너무나도 신나 했고, 다음에 또 하자고도 얘기했습니다. 저 또한 폐유리를 활용하여 이렇게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게 되어 뿌듯했습니다. 이렇게 아이와 또 하나의 자그마한 추억을 만들며 즐거운 저녁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D.I.Y

냄비 받침대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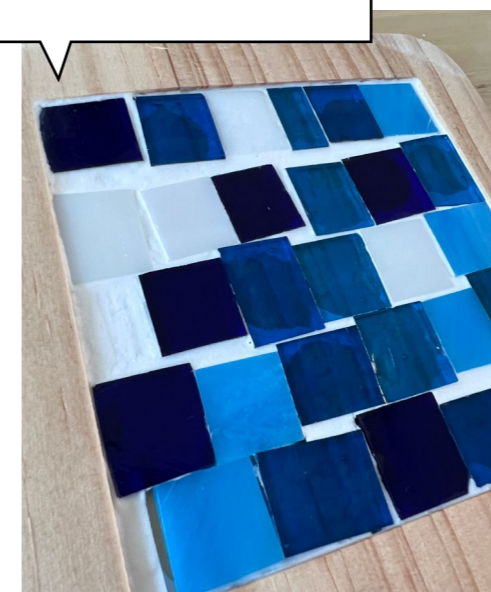
SIMPAC홀딩스 이도영 매니저

평소에 업사이클링에 관심이 많았는데,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품을 제작할 기회가 생겨 운 좋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집에서 사용하던 냄비 받침대의 경우 손잡이가 별도로 없어서 사용하면 간간히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번에 제작하게 된 냄비 받침대는 손잡이의 디테일이 있어 일상 생활에서 더욱 편리할 것 같습니다.

냄비 받침 만들기 키트 포장을 열어보니 재료들과 함께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제작 방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키트 신청 시 재활용 유리 컬러도 제 마음에 드는 것으로 직접 고를 수 있어서 보다 흥미롭게 시작했습니다. 유리 조각을 자유롭게 나무 틀에 끼워맞추고, 석고를 부은 후 한 10분 정도 기다리니 손쉽게 냄비받침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벤트 참여를 통해 재미도 있었고, 실용성 있는 업사이클링 제품을 직접 만들어 앞으로 잘 활용할 수 있게 된 좋은 기회였습니다.



나만의 냄비 받침대 완성~!



SIMPAC홀딩스 리스텍비즈 1공장 임직원들이 추천하는 전남 일대 핫플 리스트

직원들이 직접 소개하는 진짜 핫플 추천 코너! 이번 호에서는 전남 광양에서 근무 중인 SIMPAC홀딩스 리스텍비즈 1공장 임직원들이 추천한 장소들을 소개한다. 광양, 여수, 순천 등 전남 일대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심팩인들의 추천 장소를 눈여겨보자.



JEOLLANAM-DO



고요한 주임 추천!

여수 시내에 위치한 '카페 포'를 추천합니다. 고소동 벽화 마을이 있는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돌산대교와 거북선대교 사이 바다를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근처에는 해양공원과 낭만포차 거리가 위치하고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매장 건물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낮에는 여수의 반짝이는 바다와 그 위에 떠 있는 배들을 구경하기 좋고, 야간에도 밤바다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곳입니다. 2,3층 실내 매장 외에도 루프탑에도 꼭 올라가 보세요. 멋진 분위기 속에서 맛있는 커피와 함께 최고의 오션뷰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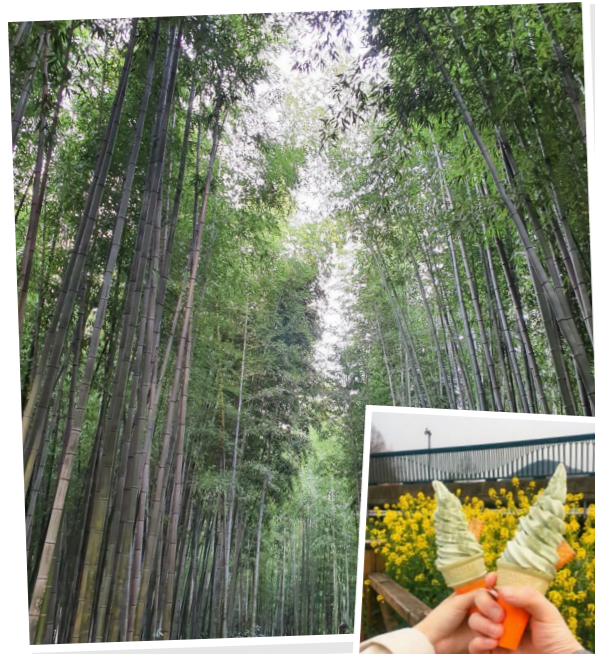
여수 카페 포(Cafe for)
전남 여주시 고소5길 16

김영철 팀장 추천!

광양 구봉산(해발 473m)에 설치된 전망대로 광양과 순천, 하동, 여수, 남해까지 조망할 수 있는 일출&일몰 명소입니다. 전망대 바로 밑까지 차로 갈수 있어 누구나 쉽게 일출, 일몰과 광양만의 멋진 야경을 볼 수 있습니다. 빛의 도시이자 철의 도시인 광양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특수강과 LED 조명을 활용해 만든 봉수대 조형물이 인상적입니다. '광양 구봉산 전망대'로 검색해 찾아오시면 되니 광양에 오시면 꼭 한번 들려서 멋진 풍경을 감상하세요.

광양 구봉산 전망대
전남 광양시 구봉산전망대길 155





박지윤 매니저 추천!

담양 여행의 필수 방문지 '죽녹원'은 대나무로 가득한 숲으로, 비가 오는 날이면 운치 있는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약간의 오르막길 이어서 가볍게 운동하는 느낌도 들고요. 평일에는 사람도 거의 없어서 1시간 반 정도 천천히 여유롭게 구경하기 좋습니다. 곳곳에 쉼터들이 마련되어 있어, 잠시 앉아 휴식을 취하면서 바람에 스치는 대나무 잎 ASMR도 느낄 수 있습니다. 죽녹원을 다 돌아보고 나서 골목 상권에서 파는 맛있는 아이스크림까지 맛보면 힐링 그 자체!

담양 죽녹원
전남 담양군 담양읍 죽녹원로 119

순천 신대지구에 위치한 '카페유리'는 망고 빙수로 유명한 디저트 맛집입니다! 여름에 빙수가 생각나면 꼭 방문하는 곳이에요~ 아이스크림과 망고가 푸짐하게 얹어져 있어 한 입씩 크게 떠먹을 때마다 달달하니 기분이 좋아져요^^ 이곳에서 차로 15분 거리에는 순천 그린광장이 드넓게 펼쳐져 있어 돛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기도 합니다. 가벼운 나들이 코스로 추천합니다!

순천 카페유리
전남 순천시 해룡면 매안2길 17

전화영 선임 추천!

여수 현지인 맛집으로 유명한 '한곳에88'을 추천합니다. 서시장 포차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이곳의 매운 돼지 갈비찜은 비주얼이 압도적입니다. 뚝배기가 넘칠 정도로 양이 많고, 매콤한 향이 입맛을 돋게 해요. 밑반찬들도 맛있어서 밥 한공기는 딱딱입니다. 정말 후회없이 배 터지도록 맛있게 먹고 온 맛집이라, 여수에 방문하신다면 한곳에88에 가실 것을 강추 드려요~

여수 한곳에88
전남 여주시 충무연등천길 2



이혜진 사원 추천!

사진만 보서는 화원인지 카페인지 헷갈리시죠? 인테리어, 티팟과 찻잔, 디저트 등 하나부터 열까지 사랑스러운 사장님의 정성 가득한 화원이자 카페입니다. 플라워 케이크, 꽃다발, 꽃바구니 등 비치되어 있는 식물들도 함께 판매하는 곳으로 그때그때 달라지는 식물들을 보는 재미도 있어요! 저의 최애 카페로 몇 년째 단골인데요, 지인들과 함께 갈 때마다 다들 좋아하시고 다음에 또 와야겠다 하는 공간이에요. 제 추천 메뉴는 레몬 마들렌으로 제가 먹어본 전국 빵집 레몬 마들렌 중 여기가 정말 No.1입니다. 달달하고 상큼해서 어느 음료와도 잘 어울립니다. 다들 여유가 있으시다면 '비밀정원'에 들려 아름다운 공간과 맛있는 디저트를 즐겨보세요.

광양 비밀정원
광양시 광양읍 서평로 2



H O T PLACE



변석진 매니저 추천!

5월의 어느 날, 지리산 일출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3시부터 입산이 가능해서 성삼재 휴게소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차박을 한 후 3시 30분부터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완만한 등산로를 올라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편리한 주차장이 있고 산행거리도 짧아서 누구나 도전해볼만 합니다. 멋진 사진을 남기고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번 주말 등산은 어떨까요?

지리산 성삼재 휴게소
전남 구례군 산동면 노고단로 1068



아차!

하는 순간 발생할 수 있는 추락 낙상 사고 예방하기

추락 및 낙상사고는 '아차'하는 순간에 발생합니다. 미처 내 몸을 방어할 틈도 없이 머리부터 떨어지게 된다면 심할 경우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다고 해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방어 태세를 취한다 하더라도 떨어지는 과정에서 손을 잘못 짚거나 다리를 빼끗하여, 타박상 및 골절상을 입을 수 있기에 항상 집중해야 합니다.



#1

운송 차량, 굴삭기,
압축 기계에서의
낙상 사고에 유의해주세요.

업무 특성상 원재료 입출고 시 운송 차량 위에 올라가 원재료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차량을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잘못 짚는다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업 전 안전모, 각반 등 안전보호구 착용은 필수이며,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차분히 업무를 실시하면 충분히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굴삭기 탑승 및 하차 시, 굴삭기 또는 압축기계 유지 보수 시에도 미끄러져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설비 및 장비의 청소와 청결 유지를 통해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2

추락 및 낙상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SIMPAC글로벌에서는 현재까지 관련 사고 사례는 없습니다만,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속히 환자 상태를 살펴 긴급 상황일 경우 응급 조치 실시 및 119에 구조 요청을 하고, 작업 중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타박상 등 가벼운 부상일 시에는 냉찜질 또는 파스 등 상비약을 사용해 치료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평소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안전 교육이 있을까요?

매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타사의 안전사고 발생 사례에 대해서도 교육하며 사고의 위험성을 공유하고 항상 안전에 유의할 것을 주시시키고 있습니다. 더불어 '안전 제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업 현장에서 안전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제안을 거쳐 개선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안전한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임직원 분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가장 최우선에 두어야 할 가치는 '안전'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관리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결국엔 현장 작업자가 안전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의 안전이 곧 가정의 안전이고, 회사의 안전이다'라고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작업에 임하실 때는 안전보호구를 필히 착용해 주시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건강한 작업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고물가 시대, 절약정신으로 무장한 직장인 라이프스타일 키워드



식품, 휘발유, 공공요금 등이 다시 줄줄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초인플레이션 상황이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함께 최근 몇 년간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 직장인의 실질 소득은 줄어들었다. 때문에 많은 이들이 고물가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그야말로 허리띠를 졸라 매며 짠테크에 나서고 있다. 일상 속에서 절약을 실천하고 있는 MZ세대 직장인들의 전략을 키워드로 알아보자.

#무지출 챌린지 #거지방

다양한 챌린지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치솟는 물가로 주머니가 얇아진 MZ세대 사이에서는 '무지출 챌린지'가 주목받고 있다.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말 그대로 '지출 없음'을 실천하기 위한 챌린지다. SNS 상에서는 #무지출 챌린지 해시태그와 함께 일주일에 며칠이나 무지출에 성공했는지 가계부를 인증하고,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ex.냉장고 파먹기, 도시락 싸기, 출퇴근 시 도보나 자전거 이용하기)을 했는지 공유하는 글과 사진, 영상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최근에는 '거지방' 또는 '무지출방', '절약방'이라고도 불리는 짠테크 방법도 주목받고 있다. 카카오톡에는 모르는 사람끼리 같은 주제에 대해 대화할 수 있는 오픈채팅방 기능이 있는데, 일명 '거지방'에서는 서로의 지출 내역이나 절약 습관 등을 공유한다. 지출을 최소화한 사람은 격려하며 본받고자 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지출을 한 사람은 질책하기도 하며 절약 정신을 기르곤 한다. 혼자 노력하는 것보다 재미도 있고 동기부여도 되기에 많은 이들이 함께하고 있다.

#런치플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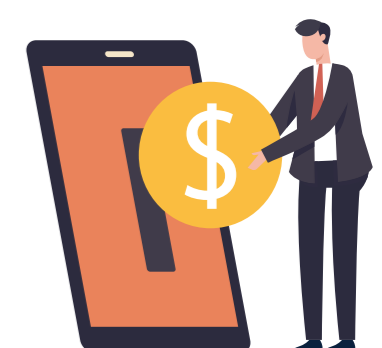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점심 값 지출이 늘어난 상황을 '런치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점심(Lunch)과 인플레이션(Inflation, 물가 상승)의 합성어로, 코로나19-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밀과 식용유 등 주요 식자재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외식 물가가 상승하면서 생겨난 용어다.

장 볼 때, 그리고 밥을 사 먹을 때 물가가 올랐다는 것을 가장 체감하게 하게 된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밖에서 식사 한 끼 하려면 9천 원 이상은 기본이고, 어느덧 라면 한 봉지 가격이 1천 원에 이를 정도다. 2023년 5월 전체 소비자 물가는 3.3% 올랐는데, 그 중에서도 가공식품 물가는 7.3%, 외식 물가는 6.9%나 올랐다고 한다. 지난 3월,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19~59세 직장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인 점심식사 관련 인식 조사'에 따르면 최근 물가 상승으로 외부 식당에서의 점심식사를 부담스러워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63.9%가 '이전보다 점심값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답변했고, 간편식으로 점심을 때우거나 후식을 자제함은 물론 아예 식사를 거른다는 답변도 증가했다. 점심값에 부담을 느낀 직장인들은 도시락을 싸 오거나, 바깥 음식 대신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편의점 도시락과 같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메뉴를 선택하고 있다. 배달음식을 주문하거나 테이크아웃 해 온다는 비율은 감소세다.

#앱테크 #잼테크

'앱테크'란 애플리케이션과 재테크의 합성어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적립금을 모아 기프트콘을 받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앱 내 광고를 보거나 퀴즈를 풀고, 기업 공식 계정을 팔로우 한 후 인증하거나, 만보기 앱에 측정된 걸음 수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받아 이를 기프트콘이나 현금으로 현금 받는 식이다. 이용자들은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적은 금액이나마 부수입을 올릴 수 있고, 광고주는 앱을 통해 많은 소비자들에게 광고를 노출할 수 있어 앱테크를 위한 다양한 앱들이 사랑받고 있다.

최근 '잼테크'라는 용어도 새롭게 등장했다. '재미'와 '재테크'의 합성어로 재테크 과정에서 혜택과 함께 재미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재테크 상품에 단순 혜택뿐 아니라 흥미로운 요소가 가미되어 있을 경우 MZ세대의 시선을 더 끌고 있는 한다. 금융 플랫폼 내에서 지인들과 서로 포인트를 선물하거나, 여러가지 미션을 수행하면서 더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소소한 금액이나 잼테크 상품에 투자하면서 많은 이들이 재미있는 재테크를 추구하고 있다.



#리퍼브족 #중고거래



'리퍼브족'이란 구매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해 반품되었거나, 약간의 흠이 있는 상품, 매장 전시 제품, 이월상품 등을 뜻하는 리퍼비시 제품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고자 하는 이들을 뜻한다.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의 리퍼비시 제품에

대한 인식을 묻는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8명은 리퍼비시 제품을 구매해 본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성별 및 연령에 관계없이 리퍼비시 제품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 제품과 비교해 품질에 큰 차이가 없으면서도 가성비가 좋아, 고물가 시대의 합리적인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다. 리퍼비시 제품을 전문으로 하는 온·오프라인 상점들이 관심을 끌고 있고, 대형 유통사들도 자사 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 리퍼브족을 위한 할인 코너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중고거래 시장도 날로 활성화되고 있다. 구입하고 몇 번 사용하지 않은 물건을 그냥 가지고 있거나 버리기보다는 중고로 판매함으로써 돈도 벌고, 낭비되는 자원을 재활용하여 환경 보호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최근 소비 행위를 통해 자신의 신념을 드러내는 '가치소비' 트렌드가 대세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과 합리적 소비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중고나 리퍼비시 제품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SIMPAC그룹 사보 독자 참여 이벤트



새롭게 달라진 SIMPAC그룹 사보 2023년 상반기호 어떻게 보셨나요?
책 속에 숨겨진 힌트를 찾아 아래 퀴즈의 정답과 함께 사보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 우측의 QR코드로 접속하여 이벤트에 참여해 주세요.(7월 31일 응모 건까지)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 20명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Q U I Z

1 세계 최초로 고무 및 PVC 혼련 공정의 자동화를
구현한 SIMPAC인더스트리 제품 이름의 약자
(알파벳 3글자)는 무엇일까요?

(알파벳 3글자)

2 이번호 '현장 속으로' 코너 인터뷰
및 촬영이 진행된 장소는 어디일까요?

(SIMPAC인더스트리 산업기체BU OOOOO)

3 지난 5월 여의도 SIMPAC빌딩에서 그룹 내
DX 관련 인력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이 진행됐는데, 이날 강연을 진행한
교수의 이름을 맞춰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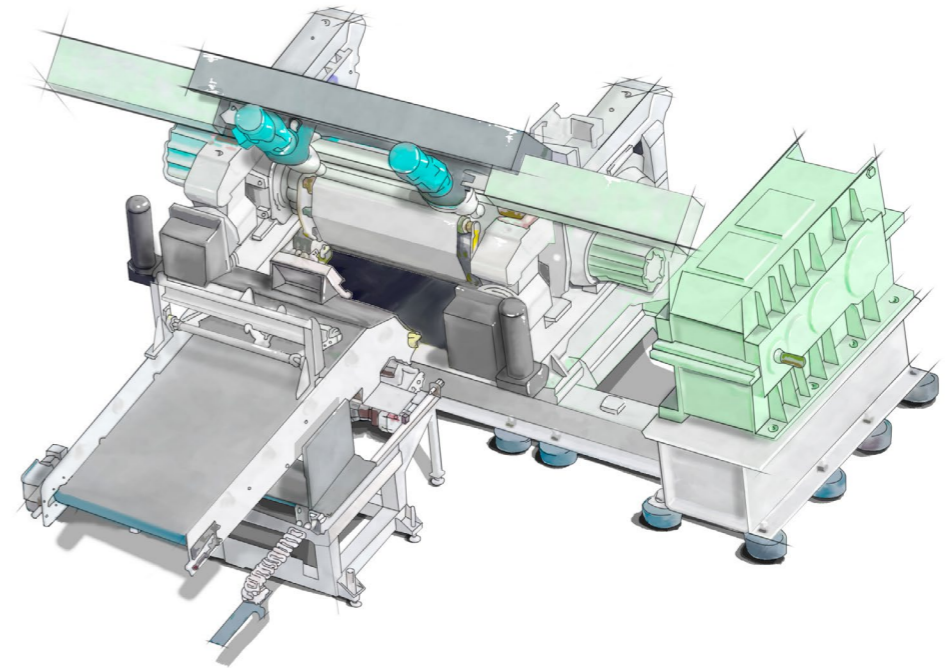
(미시간 대학교 OOO 교수)

4 이번호 '심팩인 아지트' 코너에
소개되지 않은 장소는 어디일까요?

- ① 광양 구룡산 전망대 ② 담양 죽녹원
- ③ 보성 녹차밭 ④ 지리산 성삼재

세계 최초 고무 및 PVC 혼련 공정 자동화 구현

Auto Mixing System(AMS)



기존 MIXING MILL 설비에 액세서리 형식으로 AMS 적용 가능



품질 균일화

혼련 공정 자동화로
매회 일정한 품질의
제품 생산



작업자 안전 및 근로 편의성 향상

작업 및 환경 안전 개선



생산성 향상

기존 대비 생산량
약 40% 향상, 불량률
약 50% 감소, 납기
준수율 약 60% 향상



원가 경쟁력 향상

동일 업무 투입 인원
약 2/3로 절감 효과